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고등학생들의  
학업미루기행동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2017년 8월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컨설팅협동과정

김은진

교육학석사학위논문

고등학생들의  
학업미루기행동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지도교수 강승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8월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컨설팅협동과정

김은진

김은진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8월 25일



위 원 장    교육학박사    원 효 현 (인)

위    원    교육학박사    허    균 (인)

위    원    교육학박사    강 승 희 (인)

# 목 차

## <ABSTRACT>

I. 서 론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6
II. 이론적 배경 .....	7
1. 고등학생에 대한 이해 .....	7
가. 고등학생과 공부 .....	8
나. 고등학생과 학교 .....	10
다. 고등학생의 하루 .....	13
2. 학업미루기행동에 대한 이해 .....	15
가. 학업미루기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15
나. 문제 삼기 .....	21
III. 연구 방법 .....	23
1. 내러티브 탐구의 개념 .....	23
2. 내러티브 탐구의 수행과정 .....	26
3. 연구의 엄격성 .....	40
4. 윤리적 고려 .....	41

IV. 고등학생들의 학업미루기행동 경험 이야기 .....	43
1. 봄의 이야기 .....	43
2. 여름의 이야기 .....	46
3. 가을의 이야기 .....	49
4. 겨울의 이야기 .....	53
5. 하늘의 이야기 .....	56
6. 바다의 이야기 .....	60
7. 강의의 이야기 .....	63
8. 달의 이야기 .....	67
9. 별의 이야기 .....	71
V. 고등학생들의 학업미루기행동 경험의 의미 .....	75
1. 시간적 맥락에서의 의미 .....	75
2. 공간적 맥락에서의 의미 .....	90
3. 관계적 맥락에서의 의미 .....	96
VI. 논의 및 결론 .....	105
1. 논의 .....	105
2. 결론 .....	113
연구를 마치며 .....	116
참고문헌 .....	119
부록 .....	137

## <표 목차>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30

<표 2> 면담 일자 및 주요 면담 내용.....37

## <그림 목차>

<그림 1> 본 연구에서 적용된 내러티브 탐구절차.....26



A Narrative Inquiry into the Experience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in High school Students

**Eun Jin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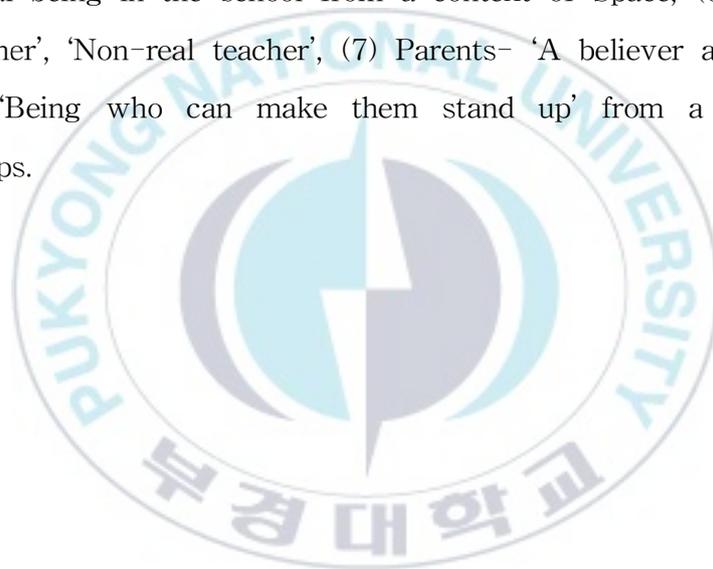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Educational Consulting,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understand the students in high school who undergo an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to find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s. It was guided by the following two questions: (1) How does the students in high school go through an experience of academic procrastination? (2) What is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 under the context of time, space, and relationships?

A qualitative narrative inquiry study design was used. Nine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1) 3 boys in a focus group, (2) 5 girls in a focus group, and (3) a girl with a high accomplishment. Data was collected by using a semistructured interview for an initial meeting. Open-ended questions were used in subsequent interviews. In order to be included in the study, all participants have current or past involvement of academic procrastination.

Narrative inquiry methods of constant comparative analysis and theoretical sampling were used to analyze audiotaped interviews and verbatim interview transcripts. Analysis resulted in 8 variables: (1) Past: Beginning of procrastination- 'a fence that they could jump over', (2) Present: Procrastination- 'a wall that they cannot jump over', (3) Future: Procrastination- 'procrastinating this time for time to come' from a context of Time, (4) School: 'Being-in-the-school', (5) School: 'Differential-being-in-the-school from a context of Space, (6) Teacher- 'Real teacher', 'Non-real teacher', (7) Parents- 'A believer as it is', (8) Friends- 'Being who can make them stand up' from a context of relationships.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라는 말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듣는다. 그러나,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완성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일을 정해진 시간 안에 완성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한다. 그들 중에는 정해진 시간에 완성하여 성실함을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주어진 시간 안에 해야 할 일을 완성하지 못하거나, 미루다가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어떠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습관’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을 반복적으로 미루는 것을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미루기(procrastination)’라는 용어는 Merriam-Webster 사전에는 ‘의도적이고 습관적으로 해야 할 일을 연기하다.’(Gove, 1976)로, Cambridge 사전에는 ‘그 일이 즐겁지 않거나 지루하기 때문에 꼭 해야만 하는 일을 연기하는 지속적인 행동’(Procter, 1995)으로, Collins Cobuild 사전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미루기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나중까지 남겨두기 위해서 일을 매우 느리게 하는 것’(Sinclair, 1987)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루기는 학업적인 영역, 직업적인 영역, 대인관계 영역 등 일상생활 전반에 널리 퍼져 있고,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현상(Steel, 2007)임에도 불구하고, 서양에서도 다른 심리 문제에 대한 연구와

비교할 때,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여 미루기 행동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시작되었다(Van Eerde, 2003).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학생과 관련하여 이루어졌고, 그 연구들의 목적은 학생들이 학업 과정에서 미루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과학적이고 기초적인 중재 방법을 개발하는 데 있었다(Schouwenburg, 1995).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에 교육학과 심리학 쪽에서 주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었다(윤재호, 2011). 미루기의 영역 중에서 특히 학업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미루기를 ‘학업미루기’라고 하며, 학업미루기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유지원, 강명희, 김은희, 2013).

학업미루기행동의 원인을 연구하기 위해 여러 학자들이 여러 관점에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Else-Quest, Hyde, Goldsmith, & Hulle, 2006; Rabin, Fogel, & Nutter-Upham, 2011; Steel, 2007),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연구가 미루는 행동과 미루지 않는 행동을 단순히 반대 개념으로 보고(윤재호, 2011; Choi & Moran, 2009), 정서, 인지, 행동요소 등을 두루 포함하는(Fee & Tangney, 2000)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학업미루기행동이 가진 적응적인 특징을 간과(김수지, 2013)하였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최근 들어 비교적 적응적인 기능을 하는 학업미루기 행동에 대한 연구(Flette, Blankstein, & Matin, 1995; Lay, 1988)와, 학업미루기행동의 하위 요인을 바탕으로 하여 유형화하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김수지, 2013). 학업동기 또는 학업성취에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했던 전통적인 개념의 미루기 행동을 ‘수동적인 미루기’라고 하며, 이와 반대로 학생이 미루기 행동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하는 경우, 이것을 ‘능동적인 미루기’라고 한다(Chu & Choi, 2005).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미루기 또는 능동적 미루기(active procrastination)

는 개인의 동기적인 측면에 주목한 개념이다. 능동적 미루기를 하는 학생의 경우에 비록 미루기 행동을 하더라도 개인의 수행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며 그들의 수행결과는 미루기를 하지 않는 학생들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Choi & Moran, 2009; Chu & Choi, 2005). 이에 반해, 수동적인 미루기(passive procrastination)를 하는 학생은 자신이 원치 않은 상황에서 미루기 행동을 하며 과제를 마치는데 어려움을 겪고, 수행의 결과가 다른 집단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지, 2013).

지금까지의 학업미루기행동에 대한 연구방향을 분석해보면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미루기의 원인이 개인의 성격적인 특질, 또는 고정적인 성향에 있다고 보는 관점(Van Eerde, 2000)과 둘째, 미루기의 원인이 상황 특수적이며 개인의 인지, 정서, 동기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는 역동적인 관점(이선영, 2015)이다. 최근에는 교실 목표 구조와 같은 학습 환경을 변인으로 한 미루기 연구(Corkin, Yu, Wolters, & Wiesner, 2014; Grunschel, Patrzek, & Fries, 2013)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학습자와 학습 환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한 ‘미루기’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Fee & Tangney, 2000).

이처럼,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학업미루기행동에 대한 연구는 미루기의 현상에 대한 원인을 여러 변인과의 관계에서 탐구하는 양적인 연구가 거의 대부분인데, 미루기의 원인으로 완벽주의, 실패공포, 부정적 자기개념, 학업스트레스,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조절의 실패 등 변인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합치된 이론으로 미루기 현상에 대한 이론이 정립되는 것이 어려웠다(김수지, 2013).

이러한 이유로 대학생의 학업미루기행동의 원인을 혼합 연구 방법으로 탐색한 서미옥(2014)은 미루기에 대한 연구는 질적 연구가 더 적합할 것이라는 제안을 하였다. 서미옥(2014)의 연구에서, 미루기에 대한 원인이 ‘드러

난 원인'도 있지만 심층면담을 통해 '감추어진 원인'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심지어 자신의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대부분의 학업미루기행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학업 미루기 행동은 절대적인 학업양이 증가하고 과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Solomon & Rothblum, 1984; Steel, 2007), 대학 진학을 위하여 심화된 교과내용을 장시간 학습해야 하는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미루기행동이 더 자주 관찰되고, 이로 인한 어려움이 보다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강은비, 2013; 이수민, 양난미, 2011). 학업미루기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의 특징은 학습행동에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주의 집중력이 손상되어 있으며, 학업과제를 수행하는 데 드는 시간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학습행동의 효율성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DeWitte & Lens, 2000; McCown, Petzel, & Rupert, 1987; Pychyl, Morin, & Salmon, 2000).

미루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 다만, 마음먹은 것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다(Schouwenburg & Lay, 1995). 즉, 미루기행동은 의도와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의미하는데, 학업미루기행동을 하는 학생들은 학업 상황에서 자신의 의도와 실제 행동 사이에서 반복적인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 학생들은 자기에 대한 인지적 모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 자기 조절의 실패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또 다시 부적응적인 미루기행동을 하게 되어 결국 미루기행동이 만성적으로 되는 것이다(Orella-Damacela, Tindale, & Suarez-Balcazr, 2000; Rusell, 2003). 이것은 미루기행동의 역기능적인 순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학업미루기행동을 하는 학생이 자신의 행동

에 대해 정서적으로 불편감을 겪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행동의 변화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즉, 학업미루기행동은 안정적이며,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Eeder, 2003; Steel, 2007; Steel, 2002), 어느 한 가지의 단일요인만으로 학업미루기행동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업미루기행동은 이렇듯 학생들의 동기, 정서, 가정과 학습 환경 등이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학업미루기행동’에 관한 연구는 개인의 고민과 갈등의 경험을 파악할 수 있는 심층적인 연구로 행해질 필요가 있다.

학업미루기행동을 경험하고 있는 고등학생들 개개인의 과거의 삶과 학습 경험은 어떠한지, 그들이 살고 있는 현재는 어떠한지, 또 앞으로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 즉 가정과 학교에서 그들은 어떠한 삶의 경험과 학습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그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겪고 있는 학업미루기행동에 대한 경험이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질적 연구의 목적은 다수의 연구대상자를 통한 일반화의 도출이 아니라, 특정 연구참여자의 경험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내고 그 연구참여자를 실제적 맥락 안에서 이해하는 데 있다(서원주, 2010). 이러한 목적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연구방법이 개인의 이야기화된 경험(storied experience)을 시간의 흐름과 상황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탐구하는 내러티브 탐구방법이다(홍영숙, 2015). 내러티브 탐구방법은 우리 삶의 맥락에 대한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의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이정표, 201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 중 내러티브 탐구방법으로 학업

을 이루는 고등학생들의 경험을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분절적이지 않고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학업미루기행동을 하는 고등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퍼즐조각들을 교육적인 맥락에서 다시 조합하여 그들의 삶과 학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들의 학업미루기행동 경험을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맥락 속에서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사용하여 고등학생들은 어떠한 맥락 속에서 학업미루기행동을 하며, 그들이 경험하는 학업미루기행동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시간적, 공간적, 관계적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고등학생들의 학업미루기행동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고등학생들의 학업미루기행동 경험의 의미는 시간적, 공간적, 관계적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되는가?

## II. 이론적 배경

고등학생들의 학업미루기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등학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생의 생활과 문화를 특징짓는 가장 대표적인 속성 중 하나가 ‘공부’이므로(조용환, 2009), 선행연구를 통해 고등학생들은 공부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또 그들이 부여한 공부의 의미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또한 고등학생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어떠한 체험을 하고, 중요한 타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의미를 형성해 나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하이데거는 존재는 곧 시간이라고 하였다(조용환, 2009). 그러므로 고등학생들의 매일의 일상과, 그 일상의 경험이 시간의 흐름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지며 또한 그들의 존재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들을 질적 연구 위주로 살펴봄으로써 고등학생들의 학업미루기행동 경험을 시간적, 공간적, 관계적 맥락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학업미루기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를 풍부히 하고자 한다.

### 1. 고등학생에 대한 이해

## 가. 고등학생과 공부

공부는 고등학생의 생활과 문화를 특징짓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이며, 그들의 전형적인 삶은 공부하는 삶이다(조용환, 2009). 그렇다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공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

먼저 고등학생들은 공부를 ‘실력을 쌓는 일’, ‘피할 수 없는 숙명’,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 ‘그냥 인생의 일부’ 등으로 정의했다. 공부하는 이유나 목적은 막연하거나 모호하고, 공부를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지만 불안해서 공부하거나 또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공부한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대학 잘 가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가장 많았다. 그들은 ‘공부하는 애’의 반의어는 ‘생각 없는 애’라고 규정하면서도 또, ‘생각이 없어야 공부할 수 있다.’는 모순된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적이므로 공부하는 이유는 막연하지만, 미래를 위해 현재 하고 싶은 것을 유예하고 무미건조한 매일을 견뎌나간다(조용환, 2009). 그래서 이들은 모든 주체적인 사고와 활동에서 심지어 인간관계에서도 소외되거나,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있었다.

듀이(J. Dewey)는 교육을 ‘삶의 수단’이 아닌 ‘삶 그 자체’라고 하였다.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학습을 요구하고, 학습을 통해서 비로소 존재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 공부는 ‘쓸모’를 위한 공부가 더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공부는 좋아하지 않지만 열심히 해야 하고, 하기 싫지만 하는 게 낫고, 언젠가의 쓸모를 기대하고 부모님과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일이다(조용환, 2009).

‘해야 하는 공부’와 ‘하고 싶은 공부’ 사이의 거리 좁히기는 입시위주의

우리나라 교육체제와 의존적인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학업성향으로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하고 싶은 공부를 선택적으로 포기하고, 해야 하는 공부에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잘 하는 공부’, ‘바람직한 공부’로 여겨지기도 하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에서 ‘공부다운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은 시간 낭비이며 무모한 일로 여겨지기까지 한다. 이러한 교육적 상황에 길들여진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주어진 세계’와 ‘주어진 질문’에 갇힌 채 ‘문제를 찾는 존재(problem seeker)되기’를 유보하고 주어진 ‘문제들을 푸는 존재(problem solver)’로 살아간다(조용환, 2009).

그러나, 교육적 존재론에서 존재는 ‘무엇이기(being)가 아닌 ‘무엇되기(becoming)인데(조용환, 2001), ‘무엇되기’의 과정에는 반드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자들이 존재하는 의미와 이유를 묻는 ‘존재물음’(이수정, 박찬국, 1999)이 필요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늘 가던 학교에 가고, 똑같은 교실에서 늘 보던 낯익은 얼굴들과 익숙한 관계를 맺고, 정형화된 지식을 암기하며 문제를 푸는, ‘헐벗은 반복(Deleuze, 2004)’ 속에서 살고 있는 고등학생들에 대한 정형화된 의미를 해체하고 낯설게 바라보고 들여다보는 일에서부터 존재물음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존재물음에는 또한 ‘존재적 모순’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즉, ‘자율’과 ‘의존’의 존재적 모순, 다시 말해서,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자율적인 모습과 주어진 문제를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더 편한 의존적인 모습을 동시에 고등학생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아직 ‘되어가는(becoming)’ 과정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되기’의 과정은 학습적 맥락에서도 적용된다. ‘나를 위한’, ‘나에 대한’ 학습인 자기주도적 학습은 자신만의 학습법을 찾는 것이며 ‘더 나은 자기-되기’를 위한 부단한 자기 성장의 과정이다(목정연, 2012).

그러므로, 학습의 주체로서의 고등학생은 자신을 해석하고 공부를 실천에 옮기는 것에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공부는 자기를 바라보고 들여다보는 일(조용환, 2009)이므로 학업을 이루는 행동이 습관이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이러한 자기 반성적이고 자기 형성적인 과정은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

#### 나. 고등학생과 학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하루 중 거의 대부분 또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들에게 학교는 “안다닐 이유가 없고”, “안 다니고도 잘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니는” 곳이다(조용환, 2009).

먼저, 공간적인 의미로 학교는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이자 학업공간이다. 학생들은 학교에 대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장소화’하는데, 어떤 학생에게 학교는 “그냥 공부하는 곳”이고 어떤 학생은 “집과 직장의 사이”, 또 어떤 학생에게 학교는 “의무니까” 참고 다녀야 하는 곳이라고 하였다(조용환, 2009).

아이들은 학교가 싫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또 좋은 대학의 “후광효과”의 기능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비싼 숙박료”를 지불하고 자는 곳이라고도 생각한다(지연정, 김병주, 2016).

수업환경과 학교의 학습풍토는 고등학생들의 교육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성렬·김종두, 2008). 흔히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만 하면 되는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고등학생이라는 이름으로 공부자세만 갖춰지면 더운 것도, 추운 것도 아무런 문

제가 되지 않는다는 틀에 박힌 말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학교 규칙,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책상과 의자, 고등학생은 공부만 하면 된다는 생각, 공부가 인생의 전부라는 충고는 수업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교육만족도 뿐만 아니라 학습동기 저하의 원인이 된다(지연정, 김병주, 2015).

황갑진(2006)은 명문대학에 진학하면 연줄을 동원하는 능력이 커지며, 자신의 실력보다 좋은 취직자리를 얻고, 승진하고 출세할 수 있고, 높은 소득과 사회적 평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명문대학생들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곧 고등학교가 학생들을 명문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공부하는 기능인’으로 교육하는 명분이 되고, 이러한 맥락에서 고등학생의 정체성은 ‘공부를 잘 해야 하는 존재’로 설명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학교에서 학생의 위치는 시험점수로 구분되며, 점수로 상하구분이 확실히 정해지면 그 자리가 바로 ‘나’이고, 시험결과는 곧 등급으로 나타난다(지연정, 김병주, 2015). 이런 현실에 대한 학생들의 표현은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 무슨 문제만 발생하면 X등급이 그렇지, 그럴줄 알았지..., 등급, 등급... 무슨 돼지고기도 아니고, 등급 말만 들어도... 얼굴에 등급이 찍혔는지...”, “한 두 문제로 등급이 왔다갔다...” 등으로 학교현실에 대하여 학생들은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학교교육이 표면적으로는 전인교육을 목표로 내걸고 있지만 소수의 ‘성공자’를 위해 다수의 학생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왜곡되어 있다(조용환, 1994)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만약에 “왜 학교인가?”를 정말로 진지하게 묻는다면, 학교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존재물음을 심각하게 던진다면, 아마도 적지 않은 고등학생들이 탈주와 해체에 관심을 가질지도 모른다(서덕희, 2008).

고등학생들은 행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친구들과의 관계를 꼽고 있다(오영수, 이재영, 2014). 그러나 친구가 중요하다고 느끼지만 동시에 경쟁상대로도 느끼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은 친구관계에 대해 “친하지만 나보다 더 좋은 대학 갈까봐 걱정되고 속상하다.”고 말하고 있다(지연정, 김병주, 2015).

청소년기의 공부문화에서는 친구를 사귄 때 친구의 성적이 중요하며, 성적차이가 나면 친구관계가 멀어지게 되고(조경진, 김은정, 2009), 마찬가지로 성적이 떨어지면 친구관계에서도 떨어져 나가고 분리되기도 한다. 또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들은 친구의 지지를 많이 받기(박영신 외, 1999; 황명숙, 정은희, 2008) 때문에 학업성취는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문주희, 백지숙, 2012; 이운주, 문명현, 지연정, 2013)고 볼 수 있다.

‘공부다운 공부’는 ‘함께 더 나아지기(becoming better together)’이다(조용환, 2009). 그러나, 고등학생들은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면서도 친구를 ‘경쟁상대’로 보거나 ‘공부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서의 시간은 학생들에게는 참아내는 시간의 연속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시간은 바깥에서는 돌아가지만 자신들의 시간은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낀다. 이것은 학생들이 ‘객관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의 차이를 체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목정연, 2012).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험하는 ‘시간의 차이’는 학생 개개인의 체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체험이다. 다시 말해,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제도화된 시간배치를 통해 모든 시간을 동질화하여 기계적인 시간 리듬을 몸에 각인시켰기 때문에(서덕희, 2007) ‘시간의 차이’를 느낀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계적 시간 리듬’은 주도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교육을 하기 보다는 시간을 잘 지키는 사회화된 학생을 키우는 것뿐이며 이것은 주체적 몰입을 방해하는 배움에 반하는 것

이다(목정연, 2012).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과목을 수동적으로 배울 뿐, 자신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늘 시간에 쫓기는, 시간에 지는 게임을 하고 있다.

시간은 부족하고 학업량은 절대적으로 많은데다 내용은 어렵고, 잠을 줄여서 공부하는 것도 더 이상 무리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학업 미루기는 어쩌면 미루기가 아닌 미뤄지는 행동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 다. 고등학생의 하루

고등학생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하여 이루어진 양적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연구대상자인 고등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고 그들의 주관적 인식을 통한 독특한 경험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들이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등학생의 일상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탐색한 연구는 체대 입시반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입시 준비과정에 대한 연구(주병하, 2014),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모습에 대한 문화 기술적 연구(오선희, 강재태, 2011), 여고생의 입시준비와 학교생활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지연정, 김병주, 2015), 여고생의 하루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지연정, 김병주, 2016)가 있다.

지연정과 김병주(2016)은 여고생의 하루를 질적인 방법으로 연구하였는데, 여고생의 하루에 대한 이해는 일상생활의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모순들이 전반적으로 응축되어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일상성을 이해하고 공감

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밝혔다. 일상은 보잘 것 없으면서도 견고한 것이며, 그 안에 삶의 의미가 녹아있으므로 고등학생들의 하루를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직접 서술한 여고생의 하루를 살펴보면, 이들은 알람소리에 겨우 잠을 깨고, 건강을 위해 아침을 먹으라는 어머니의 걱정을 뒤로한 채 매일 마다 등교전쟁을 하면서 복잡한 버스에 몸을 싣는다. 빈자리가 나면 앉고 싶지만 학교 선배가 있으면 눈치를 보게 되고, 터널을 지나갈 때면 버스가 싱크홀로 빠져 들어가는 상상을 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는 상상을 한다. 수업시간은 늘 미로 속을 헤매는 것 같고 졸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또다시 미로 속을 헤매다 점심시간, 저녁시간이 되면 급식실로 일단 뛰고 본다. 딱히 밥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나마 그 시간이 좋기 때문이다. 시험을 치는 날이면 이것보다 더한 미로 속을 헤매면서 찍신이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늘 미리 공부를 하지 않고 벼락치기를 하는 자신을 탓하게 된다. 시험을 치고 나면 쓰나미가 지나간 것 같은 폐허를 맞보면서 성적에 완전히 붕괴되고 만다. 학교와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11시-1시 사이, 가족은 모두 잠들었는지 조용하고 가끔씩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의문과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지만, 매년 결론은 공부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뿐이다(지연정, 김병주, 2016).

‘일상’이란 매일 반복되기에 특별함이 없고 보잘 것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일상을 다루는 것은 결국 일상성을 생산하는 사회,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사회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이다(Lefebvre, 1968). 율곡은 ‘일상’의 본질은 단절 없이 늘 사람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 결국 사람다운 삶을 향한 배움에 그 본질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금-여기’에서 분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지금-여

기'와 불화한다. 역설적이게도 '지금-여기'에 충실할수록 '훗날-저기'를 기약할 뿐이다(송수진, 2016).

학교의 본질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은 그들의 존재와도 같은 대부분의 시간을 고등학생의 본질적인 의미-공부를 하면서 보내지만 충실하게 하루를 보내면 보낼수록 일상을 벗어난 시간(훗날)과 공간(저기)을 기약한다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왜곡의 결과이다.

조용환(2009)은 고등학생의 문화를 5가지 주제로 기술하였는데, 그것은 첫째, 중요한건 등수인 '성적', 둘째, 무엇이든 잘 모른다는 '막연함', 셋째, 지금 말고 대학교 가서 하자고 하는 '유예', 넷째, 재미없고 의미 없는 '무미', 다섯째, 자기 삶과 공부에서 주인이 되지 못하는 '소외'이다. 5가지 고등학생의 문화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성적 외에는 지금 중요한 것은 없고, 성적이 중요하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음'이다.

율곡에 따르면 삶이 곧 배움이며, 배움이란 일상의 모든 시·공간에서 '사람다움'을 추구하는 일이다. 배움은 주체의 자각과 노력을 전제로 행해진다(송수진, 2016)고 하였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공부에 있어서 주체적인 자각과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 내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고등학생들의 일상은 있으나 삶이 없고, 내일은 있으나 오늘은 없고, 학생은 있으나 '나'는 없다.

## 2. 학업미루기 행동에 대한 이해

### 가. 학업미루기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미루기행동은 첫째, ‘학업적 미루기 행동’, 둘째, ‘일상적 미루기 행동’, 셋째, ‘결정을 미루는 행동’, 넷째, ‘강박적 혹은 역기능적 미루기 행동’, 다섯째, ‘신경증적 미루기 행동’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학업적 미루기 행동’은 마지막 순간까지 과제나 시험 준비를 미루는 행동을 말하고, ‘일상적 미루기 행동’은 반복되는 일상생활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결정을 미루는 행동’은 정해진 시간 안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강박적 혹은 역기능적 미루기 행동’은 결정을 미루는 것과 행동을 미루는 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신경증적 미루기 행동’은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를 미루는 것을 말한다(Milgram, May-Tal & Levinson, 1998).

다섯 가지 미루기 유형 중 ‘학업적 미루기 행동’, 즉 ‘학업 미루기 행동(academic procrastination)’은 ‘학습자가 주관적인 불편감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공부나 과제를 미루는 것’(Solomon & Rothblum, 1984), 또는 ‘과제의 착수와 완성을 불필요하게 미루는 것’(Ferrari, 2001; Solomon & Rothblum, 1984)을 말한다.

학업 장면에서 학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미루는 경향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간에 과제를 끝내는 것에 대해 크게 강조하지 않는 문화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이나 직업에 있어 학생이나 직장인은 어느 정도 시간 관리에 대한 기대를 맞출 수 있어야 한다(Schouwenburg, Lay, Pychyl & Ferrari, 2015).

고등학생들은 특히 학교생활 이외에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은 적은 반면(보건복지부, 2009b), 학업활동은 학교생활을 비롯하여 방과 후 사교육까지 과중되어 학업에 부담을 느낀다(김태균, 2008). 이러한 학업적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을 나중에 미루게 하는 원인이 되며,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잠재력보다 더 낮은 학업수행을 하게 되고(추상엽, 임성문,

2008), 공부가 아닌 다른 활동들에 더 쉽게 유혹된다(Silver & Sabini, 1981).

또한 학업미루기행동으로 인해 학습자는 표절 행위나 벼락치기와 같은 학업 습관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학업적인 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Clariana, Gotzens, Badia, & Cladellas, 2012; Kim & Seo, 2015). 뿐만 아니라, 학업미루기행동을 자주 하는 학습자일수록 학습 과정에서 수치심, 죄의식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서은희, 2007). 그리고 청소년의 학업미루기행동이 만성화되면 고착되어 성격으로 굳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함경애, 송부옥, 노진숙, 천성문, 2011).

이 외에도 학업미루기행동을 하는 학생들은 연속적으로 미루는 행동을 하며, 평균 수준 이하의 수행 결과를 보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미룰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혼란에도 빠진다고 하였다(Milgram, 1991). 학업미루기행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학업미루기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발생하는 원인을 밝히고, 또한 밝혀진 원인을 근거로 과학적이고 기초적인 중재 방법을 개발하는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지속하여 왔다(Steel, 2010).

이러한 학업미루기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하여 지속되어오고 있는 두 갈래의 논쟁이 있는데(이선영, 2015), 그 중 하나의 관점은 학업미루기행동을 개인의 성격적인 특질 혹은 고정적인 성향으로 보는 관점(Van Eerde, 2000)이다. 다시 말해 학업미루기행동은 과제특성, 학습맥락, 시간에 관계 없이 고정적이며 일정한 패턴을 나타낸다는 주장이다(Dewitte & Schouwenburg, 2002).

그런데, 이와 같은 주장에 반하여 미루기행동을 이해함에 있어서 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자의 동기, 인지, 환경적인 맥락을 배제하고 개인의

고정적인 성격 특질만으로 미루기행동을 예측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론이 등장하였다(Corkin et al., 2014). 학업미루기행동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이론들인데, 그것은 학업미루기행동이 기질적인 특성 뿐 아니라 학습자의 동기, 인지, 학습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는 역동적인 관점이다(이선영, 2015). 학업미루기행동의 역동적인 관점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학업미루기행동은 학습자의 동기적 특성과 과제특성을 포함한 학습 맥락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Moon & Illingworth, 2005).

즉 역동적 관점에서의 학업미루기행동은 낮은 자기조절 상태 혹은 자기조절의 실패이며 이는 학습자의 동기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각된 유능감, 자기효능감, 성취목표, 자기결정성이론 등도 학습자의 미루기행동과 관련된 동기적 변인으로 고려하였다(이선영, 2015).

다음으로 고등학생의 학업미루기행동의 학습 맥락적 특성, 즉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자녀 관계와 교실목표구조가 있다(Hong, Hwang, Kuo, & Hsu, 2015).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통제적인 태도는 자녀의 수동적인 학업태도를 유도하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성향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학업미루기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Bong, Hwang, Noh, & Kim, 2014; Ferrari & Olivette, 1993, 1994).

이에 반하여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학습자의 학업적 효능감과 흥미를 높이며, 그 결과 학생들의 학업미루기행동은 감소하였다(이선영, 김성인, 봉미미, 2016).

학습자의 학업미루기행동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환경적 선행 요인으로써 교실목표구조가 있다. 교실목표구조란 숙달목표구조와 수행목표구조로 구분되며, 이것은 학습자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교실의 특성과 문화를 의미한다(Ames, 1992). 숙달목표를 추구하는 교실의 학습목표는 새로운 지식

의 습득을 통한 학습자 개인의 향상과 발전(Middleton & Midgley, 2002)인 반면에 수행목표를 추구하는 교실의 학습목표는 높은 학업 성취수준을 추구하는 것과 학습자의 능력에 따른 서열을 정하는 것이다(Turner et al., 2002). 선행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자신이 속한 수학 교실의 교사가 지지적인 언어와 행동을 보인다고 지각할수록, 즉 수학 교과목의 교실을 숙달목표구조로 지각할수록 학습자의 미루기행동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Corkin et al., 2014).

한국 학생의 학업미루기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학업 미루기행동과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연구와 학업미루기행동의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검증한 연구로 구분된다(김은지, 김정섭, 2015).

그 중에서 고등학생의 학업미루기행동과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연구들은 학업미루기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변인으로 완벽주의(이현주, 2012; 전선미, 박주희, 2014; 진주은, 김은하, 2016), 실패공포(추상엽, 임성문, 2008; 한영숙, 2011; 한영숙, 김선옥, 2012), 성취목표(박상현, 함정민, 손원숙, 2016), 자기조절학습(김동일외, 2013; 신을진, 고진경, 2011; 이정민, 노지예, 2015), 가족의 구조 및 부모의 교육지원(추상엽, 임성문, 2007), 부모의 성취압력(추상엽, 임성문, 2008) 등이 있다.

Ferrari(1992)는 이러한 변인과 관련하여 미루기행동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마감시간이 임박했을 때의 스틸을 추구하는 감각추구 동기에서 비롯된 ‘각성형 미루기 행동’과, 자존감 저하의 위협을 가져오는 실패에 대한 회피와 공포에서 비롯된 ‘회피형 미루기 행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미루기행동의 유형을 능동형과 수동형(Chu & Choi, 2005), 특성형과 상황형(김희정, 2010; Ferrari, 2001)으로도 분류하였는데, 이 중에서

‘능동적 미루기(active procrastination)’는 개인의 동기적인 측면에 주목한 개념으로서 능동적으로 미루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비록 미루기행동이 나타나더라도 이는 개인의 수행을 높이기 위해 선택한 것이며 미루기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과 비슷한 수행의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Choi & Moran, 2009; Chu & Choi, 2005)이 밝혀졌다.

수동적 미루기는 학습자에게 불필요한 미루기이지만, 능동적 미루기는 의도적으로 일을 미루어 짧은 시간에 완성하는 효율적인 미루기 형태이다(서미옥, 2014). 즉, 능동적 미루기란 “미루기 연구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이며, 비록 미루기 행동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했던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개념”이다(Bui, 2007).

그러나, 국내에서 능동적 미루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능동적 미루기에 대한 타당성을 추가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서미옥, 2014).

이처럼 학업미루기행동은 이론의 합치가 힘들 정도로 많은 변인들과 이질적인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실시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일 요소를 원인으로 생각하여 실험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비일관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허효선, 임선영, 권석만, 2015).

최근에는 수동적 학업미루기행동과 능동적 학업미루기행동의 원인 및 이와 관련된 연구변인들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양적연구와 질적 연구가 혼합된 연구형태(mixed method)가 등장하였다(서미옥, 2014). 이러한 혼합 연구형태가 등장한 이유는 지금까지 밝힌 바와 같이 학업을 미루는 행동은 그 현상이 워낙 복잡할 뿐만 아니라 표면으로 드러난 현상이외에 더 심층적으로 연구대상자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미옥(2014)은 설문지 조사로 ‘드러난 원인’을 밝히고, 연구대상자들을 심층적으로 면담한 결과 양적연구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학업미루기행동의 ‘감추어진 원인’도

있음이 확인되었고, 학생들 스스로도 자신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또한 밝혀졌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탈 맥락적인 학업미루기행동의 연구로서는 이러한 감추어진 원인과, 현상은 있지만 모호한 원인을 밝혀내기가 어려울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고등학생들 개개인의 미루기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미루기가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더 나아가 그러한 의미가 부여하는 교육적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 방법 중 내러티브 탐구가 가장 적합하리라고 본다.

## 나. 문제 삼기

물음의 구조를 갖는 것은 나의 선입견을 유보해야 하는 것이며, 물음의 본질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Gadamer, 2012).

학업미루기행동을 하는 학생은 완벽주의자들인가? 학업을 미루는 행동은 무기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동인가? 미루기는 나쁜 결과를 도출하는가? 과제를 또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학생의 의도 또는 심리는 어떠한가? 학생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학업미루기행동을 하게 되는가? 학업미루기행동은 언제부터 하게 되었는가? 학업미루기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나’를 보고 부모님이나 친구들, 또는 선생님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등생들의 학업미루기행동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위의 물음들에 ‘그렇다’, ‘아니다’로 답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위의 물음에 대한 답을 계량화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물음을 던짐으

로써 연구자는 선입견과 잘못된 이해에 대한 경각심을 스스로에게 일깨우  
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자로서의 민감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고등학생들의 학업미  
루기행동에 대한 경험을 그들의 시간과 공간과 관계적 맥락에서 그들의 시  
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였다.



### Ⅲ. 연구 방법

#### 1. 내러티브 탐구의 개념

스토리가 모든 종류의 사건 또는 사건의 배열이라면, 내러티브는 그 사건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관점이나 의도, 주제를 가진 사건 진행 방식이다(정수경, 강현석, 2015). 또 내러티브란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 스토리 인지 구조, 혹은 그러한 과정의 결과이다(Polikinghorne, 1988).

내러티브는 모든 사고이자 문화 세계에 대한 관점의 표현이다(Bruner, 1990, 1996). 또한, 내러티브는 가장 중요한 삶의 양식이자 마음의 이해를 발달시키는 과정이며, 인간의 삶을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이해하는 방식이다(정수경, 강현석, 2015).

즉 우리는 내러티브라는 사고방식으로 삶과 외부세계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한다(염지숙, 1999, 2003).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내러티브는 내러티브 사고의 산물이며, 우리는 이러한 내러티브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한다(강현석, 2005). 이렇게 이야기되어진 우리의 삶은 내러티브로 인해 관계와 연결성을 지니게 되고(강현석, 최윤경, 2009) 그 결과, 이야기하는 사람과 이야기 듣는 사람이 삶의 사건들에 대해 다양한 형식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노영희, 2009).

삶은 복잡하고 한데 얽혀져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흩어져 있는 퍼즐조각과도 같다. 이럴 때 우리는 삶의 일상에서 한걸음 멀리 떨어져 일상을 낯선 시각으로 성찰하고 분석하는 해석적 과정을 거침으로써 서로 관련 없어 보였던 경험들이 퍼즐조각처럼 연결되는 경험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다(이정표, 2012).

Dewey(1916; 1920; 1933)는 우리가 모르는 것에 봉착했을 때, 경험을 되돌아봄으로써 이해하고, 행동함으로써 알아간다고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경험의 성장은 우리가 과거의 행위를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게 만들고 이는 더 나은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

Clandinin & Connelly(2000; 소경희 외, 2004)는 Dewey의 이론을 빌려 교육에 관한 연구는 삶에 관한 연구이자 곧 경험에 대한 연구라고 말한다. Dewey(1938)의 이론에 의하면 경험의 속성은 상황(situation) 맥락에서 활성화되는 계속성(continuity)과 상호작용성(interaction)을 보인다는 것이고 교육의 특성 또한 그러하다.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이러한 경험의 속성에 기초하여 삼차원적 내러티브 탐구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내러티브 탐구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경험의 세 가지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써, 첫째, 경험의 계속성 또는 시간성이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경험을 형성하고, 현재의 경험은 미래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미이다. 경험의 시간성 또는 계속성은 Clandinin과 Connelly(1994)가 제시한 내러티브 탐구의 네 방향(inward/outward, forward/backward) 중에서 'forward와 backward'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둘째, 경험의 상호작용성 또는 사회성이다. 이것은 경험이란 항상 개별 인간의 내적 조건과 개인의 환경(외적 조건)을 구성하는 것들 사이의 상호교류를 의미하며, 이것은 'inward와 outward'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셋째, 경험의 상황 또는 장소이다. 이것은 처해진 상황과 위치한 장소에 따라 개별인간이 구성하는 경험이 달라진다는 의미이다(홍영숙, 2015).

또한 경험을 '이야기화된 현상(storied phenomenon)'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내러티브 탐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네 가지 용어는 '삶을 살아내기

(living)', '이야기하기(telling)', '다시 이야기하기(retelling)', '다시 삶을 살아내기(reliving)' 이다(Cladinin & Connelly,1998).

교육학에서 인간 경험은 탐구대상인 동시에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강현석, 2007)을 한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구성해 가며, 내러티브를 통해 자신의 이해는 물론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어간다(박병기 외, 2015). 이런 의미에서 고등학생들이 학업미루기행동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과 관련된 주제를 탐구하는 방법으로는 내러티브가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내러티브에 기초한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존재와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조인숙, 2014)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성찰적 순환과정 속에서 연구자는 순전히 객관적인 탐구자가 아니라 간주관적이고 관계적인 탐구자이며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 존재하는 탐구현상의 일부가 된다. 즉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밀접한 관계형성은 매우 중요하며 연구 참여자 또한 연구의 대상에서 공동연구자가 되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협력적 과정을 강조하는 것이다(염지숙, 2009).

결론적으로, 내러티브 탐구자는 삼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지점에 위치하여 시간성, 사회성, 장소의 차원을 고려하면서 네 개의 탐구 방향성을 가지고 경험을 탐구해야 한다(홍영숙, 2015).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학업미루기행동 경험을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듣고, 말해진 그들의 경험이야기를 시간적, 공간적, 관계적 맥락속에서 이해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목적에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왜냐하

면, 고등학생들의 학업미루기행동 경험과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교육과 관련된 주제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험은 또한 그들의 삶이므로 이러한 주제를 연구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연구방법은 내러티브 탐구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2. 내러티브 탐구의 수행과정

본 연구의 수행 과정은 Connelly와 Clandinin(1990, 2000)이 제시한 내러티브 탐구방법의 절차를 따랐고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1> 본 연구에서 적용된 내러티브 탐구절차

내러티브 탐구절차		본 연구에서의 적용과정
<b>1단계</b> 현장으로 들어가기: 연구참여자 선정 및 첫 만남, 연구참여동의서 작성, 연구의 목적고지 및 일정 정하기	→	<b>Ⅲ-가-</b> (1) 연구자 자신의 경험이야기 (2) 연구참여자 선정과정 및 준거 (3) 연구참여자 소개
<b>2단계</b>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포커스집단면담 및 개인 면담하기, 현장노트작성하기	→	<b>Ⅲ-나-</b> (1) 자료수집 (2) 자료분석
<b>3단계</b>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인터뷰전사 및 분석, 동료검증	→	<b>Ⅲ-나-</b> (1) 자료수집 (2) 자료분석
<b>4단계</b>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서술적질문지 추가 작성 및 연구참여자의 경험의 의미 도출	→	<b>Ⅳ.</b> 고등학생들의 학업미루기행동 경험 이야기 <b>V.</b> 고등학생들의 학업미루기행동 경험의 의미
<b>5단계</b>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도출된 경험의 의미 서술하기, 전문가검증	→	<b>V.</b> 고등학생들의 학업미루기행동 경험의 의미

## 가. 현장으로 들어가기

고등학생들의 학업미루기행동에 대한 경험을 연구한다는 것은 연구자에게는 ‘나를 통해 그들을 만나는’ 것이다. Clandinin & Connelly(2000)는 내러티브 탐구의 중심에는 연구자 자신의 경험이 있고 그것에 대한 내러티브로 내러티브 탐구를 출발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도 현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연구자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 (1) 연구자 자신의 경험 이야기 쓰기

연구자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미루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다. 방청소하기, 부모님 심부름하기, 공부나 숙제하기 등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루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뭔가를 미리 계획적으로 하고 열심히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시험기간이 임박해서야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고, 과제 마감일이 다 되어서야 과제를 시작해서 완성도가 늘 떨어졌고, 시험을 치고 난 후에는 항상 후회했고, 과제를 제출하고 난 후에는 완성도가 낮은 과제물을 누군가가 본다는 생각에 종종 수치심을 느꼈다. 중학생 때는 공부를 미뤘다가 벼락치기를 해도 성적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자 과목이 많아지고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벼락치기의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미루기행동은 이미 만성적으로 되어서 고쳐지지 않았고, 성적은 점점 떨어졌다. 대학 입시 날짜가 가까워지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앞이 캄캄하고 막막해졌다. 그때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는 초인적인 집중력으로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절박함이 생각나는 것을 보면 대학입시가 고등학생으로서는 두렵지만 가장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인이 되어서 공부를 미루는 학생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했다. 후회하지 말고 미리 공부하라고 말해주고 싶고, 아무런 대책 없이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러한 안타까움이 동력이 되어 연구자는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고등학생들의 학업미루기행동의 경험을 통해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은 연구자의 이러한 습관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 (2) 연구참여자 선정과정 및 준거

적절성과 충분함은 질적 연구에서 참여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 원리이다. 적절성은 연구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택하는 것이고, 충분함은 현상에 대한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자료가 포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집하는 것이다(정금란, 2009).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학업미루기행동을 하는 고등학생들을 목적으로 표집하기 위하여(purposive sampling), 연구자가 출석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부민동 소재 C 교회의 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15년 이상 고등부 교사로서 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과 이미 래포(rapport) 형성이 되어있었고 학생들 면면을 잘 알고 있었다. 연구자는 2016년 12월 초, 약 20명의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한 후 간단한 면담을 통해 학업을 미루는 경향이 있고, 개인 스

케줄과 면담시간이 겹치지 않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조리 있게 잘 말할 수 있는 남녀 일반계 고등학생 8명을 선정하였는데, 1학년 남학생 3명, 여학생 1명, 2학년 여학생 4명 그리고 추가로 성적이 상위권에 속해 있고 대학수능시험을 치른 고3 여학생 1명을 따로 선정하여 최종 9명이 연구 참여자로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학업을 미루는 행동의 빈도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유의미하게 높고, 이러한 행동의 이유도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강정임(2013)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최종 선정된 9명 중 8명을 남학생 3명이 포함된 포커스 그룹과 여학생 5명이 포함된 포커스 그룹으로 성별을 나누어서 그룹을 구성하였다. 포커스 그룹으로 구성되지 않은 나머지 1명은 개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는 해당주제에 관해 잘 알고 있는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된 자료를 수집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다(주지선, 조한익, 2014). 통상 네 명에서 열 명 사이의 참가자를 규모로 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참가자들의 생각이나 의견의 합일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주제에 대하여 사람들의 심도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이끌어내어 그 경향이 어떤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해 내고자 하는 비형식적 소그룹 인터뷰와는 차이가 있으며, 또한 개별적인 면담보다 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큰 장점이다(박귀선, 2009).

### (3) 연구 참여자 소개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9명으로 17세에서 19세까지의 부산에 소재한 일

반계 남·녀 고등학교 학생이며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이름	성별	학년	내신등급	가족관계	장래희망	학원
봄	남	고 1	3~4 등급	부모님, 형2	미정	영, 수학원
여름	남	고 1	4~5 등급	부모님, 형1	공무원	영, 수학원
가을	남	고 1	5~6 등급	부모님, 동생2	미정	영, 수학원
겨울	여	고 1	3~4 등급	조부모, 어머니	공무원	혼자 공부
하늘	여	고 2	4~5 등급	부모님, 동생1	간호장교	과외
바다	여	고 2	4~5 등급	부모님, 동생1	큐레이터	영, 수학원
강	여	고 2	4~5 등급	부모님, 언니1	간호사	영, 수학원
달	여	고 2	7~8 등급	할머니, 어머니	찬양사역자	보컬학원
별	여	고 3	1~2 등급	부모님, 오빠1	미정	•

#### 참여자 봄.

봄(17세)이는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다. 유쾌하고 수용적이신 부모님의 영향으로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또 봄이는 피아노와 베이스 기타 연주 등 음악적인 재능도 뛰어났다. 3남 중 막내인 봄이는 형들의 조언으로 너무 일찍 열심히 공부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놀았는데, 자신의 성적으로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중 3때 느끼고 시험기간 3일 전부터 학교에서 매일같이 자던 잠을 한 숨도 안자고 공부를 한 결과 평균 60점에서 98점까지 성적이 올랐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봄이는 공부도 흥미가 있어야 하는 편인데, 수학을 좋아해서 몇 시간씩 해도 지루하지가 않다고 하였다. 봄이는 또한 직업을 선택할 때도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흥미'라고 하였다.

### 참여자 여름.

여름(17세)이는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다. 중학교 때 부모님의 지나친 공부에 대한 간섭으로 억지로 공부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성적도 잘 나왔지만 공부에 대한 흥미는 잃게 되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자 부모님이 모든 것을 여름이 스스로 하게끔 일임했는데, 혼자서 할 수 있는 습관이 형성되지 않았던 여름이는 누군가의 관리가 없으면 계획대로 잘 실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서 대화를 할 때도 작은 목소리로 말하지만 친구관계에 있어서는 유머감각도 있고 친구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될 정도로 친구를 좋아했다. 장래희망은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되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며, 공부하는 속도와 생각하고 말하는 속도가 다른 사람에 비해 느리지만 어떤 일을 맡겨도 끝까지 해내는 책임감이 강한 학생이다.

### 참여자 가을.

가을(17세)이는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다. 가을이는 잘 생긴 외모에 싹싹한 성격으로 주위의 시선을 끄는 학생이다. 가을이는 중학생 때까지 의사가 되어 의료선교를 다니는 것이 꿈이었다. 그런데, 의료선교사의 꿈은 본인이 원해서라기보다 부모님과 주위의 기대가 만들어 준 꿈이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의료선교사의 꿈을 가지게 된 가을이는 고등학생이 되자 현실의 벽을 느끼게 되었고 막연하게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

도 있지만 공부가 어려워지고 공부를 잘 하는 친구들과의 갭을 느끼면서 자신감이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고 1 여름 방학 때 뮤지컬에 참가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뮤지컬의 매력에 빠지게 되고 뮤지컬 배우의 꿈을 가지게 되었다. 전문 기관에 가서 정식으로 뮤지컬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그 꿈을 접게 되었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서 가지게 된 꿈도, 본인이 하고 싶어서 가지게 된 꿈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가솔이는 ‘꿈은 그냥 꿈이고 일단 공부나 하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 참여자 겨울

겨울(17세)이는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다. 외조부모님과 어머니 밑에서 자란 겨울이는 다소 엄격하신 외조부모님의 양육방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주위의 기대와 관심을 감사하게 느끼며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인 학생이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까지 학원을 다녔지만 본인의 공부 스타일과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스타일이 잘 맞지 않다고 느껴서 1학기 이후로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친구들과 놀다가도 혼자서 독서실이나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할 정도로 자기 관리를 잘 하는 학생이다. 겨울이의 꿈은 통일부 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 참여자 하늘.

하늘(18세)이는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다. 하늘이는 성격이 활발하고 리더십이 있어서 친구들과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학생이다. 하늘이는 중학생 때까지 육상을 하다가 부상으로 인해 육상선수의 꿈을 접어야 했다. 중학교 때, 운동을 하면서도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들께 칭

찬을 받아왔지만 운동을 그만두면서 막상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니 주요과목에서 기초가 많이 부족했고, 공부를 계속 해오던 친구들에 비해 공부하는 습관이 길러지지 않아서 고등학교 1학년 시기는 부족한 기초와 공부습관을 기르는 시간으로 보냈다. 하늘이는 1학년 때는 의사가 되는 꿈이 있었다. 그런데, 2학년에 올라와서 공부양이 많아지고 학업의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하늘이는 간호장교가 되는 것으로 꿈을 수정하였다. 평소에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하늘이는 꾸준히 자신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점검하고 조정하고 있다.

#### 참여자 바다.

바다(18세)는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다. 바다는 박물관 큐레이터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신념에 비해 실천력은 강하지 않은 편이지만 기대보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때에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잃지 않는 편이다.

#### 참여자 강.

강(18세)이는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다. 현재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언니의 영향으로 강이의 꿈도 간호사가 되는 것이다. 1학년 때는 4년제 대학교 간호학과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2학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부모님과 상의하여 전문대학교 간호학과 진학으로 목표를 수정하였다. 강이의 고민은 잠이 많은 것이다. 아무리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어도 마지막까지 다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집에서 뿐만 아니고 학

교에서도 잠을 많이 자지만, 단 한 번도 학교가 좋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학교생활이 즐겁다고 했다. 긍정적이고 느긋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다.

#### 참여자 달.

달(18세)이는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다. 달이는 공부에 흥미가 없는데다, 성적이 점점 떨어지자 자신에게 실망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었다.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활동하다가 찬양사역자가 되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보컬 학원에 나가서 보컬과 작곡을 배우고 있다. 할머니와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였는데 밝고 명랑한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받는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 참여자 별.

별(19세)이는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다. 별이는 1, 2학년 때는 싱어송 라이터의 꿈을 꾸면서 실용음악학원에도 다니는 등 진지하게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3학년이 되면서 일단 꿈을 유보하고 대학진학을 위해 수능 공부에 매진하였다. 대학교에 먼저 입학하고 나서 좋아하는 노래를 계속해도 늦지 않다는 주위 어른들의 조언이 싫었지만 별이는 이러한 조언들을 무시할 수 없었고 해오던 공부를 그만 둘 용기도 없었다. 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중학교 때 성적이 상위권에 속했던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별이는 내신 성적보다는 오히려 모의고사 성적이 더 좋았다. 3학년 때, 별이의 학교생활은 아침 7시 30분에 시작하여 공식적으로는 밤 11시 30분에 하루 일과가 끝났지만 친구들은 거의 12시

30분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기숙사로 돌아가기 때문에 친구들과 같이 그 때까지 학교에 남아 있었다고 했다. 기숙사 생활이 힘들었지만 친구들과의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별이는 지금 현재의 사회 환경과 교육체제가 맘에 들지 않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것을 바꿀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 나.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이 단계는 연구의 비중이 연구자에게서 연구 참여자에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점이다.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모두에게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연구자는 처음부터 자신의 연구맥락만을 생각하고 준비한 질문지와 면담을 통해 참여자의 답변으로부터 현장텍스트를 작성해서는 안된다(김병극, 2012). 내러티브 탐구에서 말하는 자료는 기존에 있던 것을 찾아내거나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와 형식이 허용된다. 교사이야기, 자서전적 글쓰기, 저널쓰기, 현장노트, 편지, 대화, 면담, 가족이야기, 문서, 서류, 사진, 기억상자(memory boxes)등이 모든 것이 현장 텍스트가 된다(Clandinin & Connelly, 2000). 현장 텍스트를 구성할 때, 연구자는 삼차원적 탐구공간속에서 연구자와 참여자의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류소영, 2014). 그러므로 연구자는 연구과정에 대한 경험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반영하며 그에 대해 항상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이정표, 2012).

##### (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효과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서 먼저 이론적 배경의 준거를 만족시키고, 연구참여자의 답변을 잘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면접 질문지를 작성한 후 대학원생 동료 2인의 검증을 받고 질문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자료에는 면담의 녹음자료, 녹음자료의 전사본, 서술적 설문조사지, 연구자 저널이 포함되었다.

2016년 12월부터 2월까지 전체인터뷰 1회, 포커스 그룹 인터뷰 3회, 개인 면담 1회, 총 5회에 걸쳐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시간은 평균적으로 60분에서 12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은 주로 독립된 스테디룸이 있는 카페를 미리 예약하여 면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에게 면담내용이 녹음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고 휴대폰의 녹음기능과 보이스 레코더를 동시에 사용하여 녹음을 하였다. 전사된 녹음내용을 분석한 후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술적 설문조사지를 작성하여 2017년 3월 포커스 그룹으로 인터뷰에 응했던 참여자 8명에게 배부하였고, 그 중 7부를 회수하였다. 연구자와 참여자, 그리고 참여자들 간의 래포(rapport) 형성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면담분위기가 활발했고, 연구자가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서 면담을 이끌어 나갔다. 상황에 따라 사전에 준비한 질문을 목록 중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하였고, 참여자가 응답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확인 작업(proving)을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자 저널을 작성함으로써 자료의 수집과 해석과정에서 고등학생들의 학업미루기행동 경험에 대해 연구자의 주관적인 생각과 관성적인 사고, 그리고 일반화를 시키려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연구자의 '거리두기' 관점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참여자와의 면담일정과 주요 면담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면담 일자 및 주요 면담 내용

회차	구분	날짜	장소	참석자	면담내용
1회	전체면담	2016.12.18	T식당	참여자 8명	연구목적 연구절차 참여동의서
2회	포커스그룹면담 (여학생그룹)	2017.1.2	교회	겨울 하늘 바다 강 달	공부의 의미 꿈과 공부의 관계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 공부습관 학업 미루기 경험
3회	포커스그룹면담 (여학생그룹)	2017.1.19	E카페	겨울 바다 강 달	미루기와 환경 미루기 행동에 대한 인식 벼락치기 경험 벼락치기의 결과
4회	포커스그룹면담 (남학생그룹)	2017.1.16	E카페	봄 여름 가을	미루기와 주위 반응 미루게 된 계기 미루기의 영향
5회	개인면담	2017.2.13		별	미루기 행동의 원인 미루기 행동의 결과 성격과 미루기 학교생활 교우관계 시간관리

(2)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개인면담에서 얻어진 자료들을 전사할 때 들리는 모든 소리를 문자로 기록하였고, 비언어적인 요소, 즉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기까지 pause의 길이, 말줄임표의 맥락적 의미, 참여자의 표정, 반응, 현장분위기 등을 지문으로 표시하여 상세히 기록하였다. 내용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목소리나 말투 등의 미세한 차이

에도 집중하면서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몇 번이나 다시 듣기를 반복하는 과정은 여간 힘든 과정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힘들기는 했지만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있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들이 말한 내용에 대해 생각하면서 본 연구가 연구자 혼자 하는 연구가 아니라 연구 참여자가 함께 참여하는 연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자료를 재배열하거나 자료의 재배열에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인 해석 과정(Yin, 2013)을 포함하는 질적인 분석을 하였다. 분석한 내용은 다시 연구 참여자들에게 보여주고 연구자의 주관적인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했으나 고등학생들의 특성상 글을 읽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여 대면으로나 서술적질문지를 활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8명의 포커스 그룹 참여자들의 인터뷰 전사내용을 개인별로 따로 모으는 작업을 먼저 한 후에 모든 연구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이 정리된 자료를 질적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별 약호화(Coding)와 분류(주제별 파일화)방법에 따라 자료들을 되풀이해서 읽으면서 개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반복되는 주제와 주요 사례들을 추출한 후에 주제별로 그에 해당하는 내용 및 사례들을 정리하고 내용 분석과 해석을 통하여 주제 코딩을 하였다. 이렇게 코딩된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비교하여 전체적인 주제에 맞게 범주화한 후에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을 통하여 주제와 비교해봤을 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주제들은 제외하였다.

위의 단계들을 거친 후에 전체적인 틀에서 추출된 주요 주제들과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유목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질적연구의 분석된 자료의 해석은 결국 연구자 자신이 분석의 틀이 되어(김영천, 2004) 행해지므로 지나친 주관적 해석과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경계하기 위해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관련문헌들과 비교 분석하는 과정

을 반복하면서 ‘거리두기’와 ‘진정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 다.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이 단계에서 본격적인 글쓰기가 시작되는데, 연구자는 현장에서 수집된 다소 거칠고 개인적인 내용을 삼차원적 공간을 오가며 읽고 또 읽는 과정을 거쳐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주제와의 관련성 속에서 적합한 내용들을 추려낸다. 연구자는 추려낸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서 연구텍스트를 구성하고, 이러한 연구텍스트의 내용으로 ‘다시 이야기되는 이야기’ 즉, 참여자의 삶의 이야기가 연구자에 의해 제공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참여자의 이야기들이 일관된 맥락 속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연구참여자들의 나열된 이야기들이 줄거리(맥락)를 갖추게 되면 개인적인 특성을 가졌던 경험에 대한 탐구들이 비로소 어떠한 주제들로 그 흐름을 쫓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연구된 경험에 대한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이정표, 2012). 연구자가 다시 쓴 이야기는 참여자의 삶의 이야기를 제공하고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함이며, 또한 오랫동안 권위와 타당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위한 공간이 된다(Connelly & Clandinin, 1990).

이 단계에서 기술된 연구텍스트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so what?” “who cares?”와 같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김병극, 2012). 이것은 연구텍스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연구의 시작단계에서 새로운 주제 추출하기가 개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한다면, 연구텍스트에 대한 정당화는 사회적 측면에서의 정당화 작업이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연구

의 주제와 관련이 없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변사람들에게 연구텍스트를 읽히게 하고 그들의 반응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이정표, 2012).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의 학업미루기행동 경험이야기와 고등학생들의 학업미루기행동 경험의 의미를 서술하는 작업은 연구자에게는 고통스러운 긴장감의 연속이었지만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읽고 또 읽는 과정에서 마치 작업의 전 과정을 그들과 함께 하는 느낌을 받았다. 해석이 잘 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경우에는 주로 카카오톡이나 직접만나서 연구참여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였지만, 어떤 경우에는 마치 옆에서 참여자들이 연구자의 글쓰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이건 무슨 뜻이니?”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 “네가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 등의 혼잣말을 하기도 했다. 또한 연구텍스트가 연구자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작성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동료와 질적연구 분야의 전문가에게 텍스트를 읽게 하고 검증을 부탁하였다.

이렇게 연구텍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은 소중한 보석을 하나하나 꿰어가는 작업이었다. 연구참여자의 경험이 시간적, 공간적, 관계적 맥락 속에서 그 의미들이 도출되면 그 의미들을 관통하는 간주관적인 주제로 보석을 꿰듯 연결해 나갔다. 이것은 어렵고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본 연구의 전 과정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 3. 연구의 엄격성

Padgatt(1998)는 질적 연구에서의 엄격성이란 질적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결과에 대한 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질적 연구의 신

빙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연구참여자의 반응성, 연구자의 편견 그리고 연구참여자의 편견이라고 보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친 관계형성, 다원화(triangulation), 동료집단의 조언 및 지지, 연구대상을 통한 재확인, 예외적 사례분석, 감사자료 남기기를 제시하였다(류소영, 2014).

대부분의 질적 연구는 자료 수집과 분석이 단순적인 선·후 관계로 이루어지는 분리된 과정이 아니라 순환·맥락적인 과정에 있다. 그래서 연구자는 현장, 현장텍스트, 연구텍스트를 오가며 자신의 주제와 줄거리에 모순은 없는지, 교육적 의미와 중요성을 충분히 담고 있는지 등을 공동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와 함께 최종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박세원, 2007).

본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먼저, 연구참여자와의 신뢰형성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였다. 면담일정 외에도 자주 연락을 취하고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 현장노트와 연구일지기록을 통해 자신에 대한 반성과 연구참여자와의 거리두기를 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료의 다원화를 위해 인터뷰, 서술적질문조사지, sns를 활용하여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코딩의 분석과정과 의미도출과정에서 지도교수님과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 2명을 통해 조언을 얻고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본 연구 결과와 해석에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였다.

####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위한 연구자와의 실제 면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 내용에 대한 간략적인 소개를 하였고, 연구 참여자

의 익명처리, 비밀보장, 면담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 면접 과정 시 녹음한 내용의 처리와 추후 재면담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한 뒤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 받았다. 또한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연구 참여자의 자료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연구 참여자에게 고지하였다. 그리고 텍스트 작성시, 연구참여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이름을 가명으로 처리하여 작성하였고, 인터뷰 전사한 내용이 담긴 자료들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였다.



## IV. 고등학생들의 학업미루기 행동 경험 이야기

본 연구에 참여한 9명의 고등학생들이 각자 자라온 삶의 배경이 다른 만큼 학업의 배경 또한 달랐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는 어제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오늘 그들의 학업에 대한 태도나 관점은 어제 그들이 학업적인 영역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또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과 그것을 향유하기 위한 현재의 노력여부도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의 생생한 내러티브를 통하여 그들의 살아온 배경, 희망하는 꿈, 학업을 미루게 되는 맥락, 학업을 미루는 행동을 했을 때의 심리적 상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봄이의 이야기

가. 제가 하기 싫은 일은 무조건 미뤄요.

저는 이제... 저한테 공부는 그런거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걸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는 자체가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꿈이랑 공부는 하고 싶은 거를 한다면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죠...(중략) 저는 제가 하기 싫은 일은 무조건 미뤄요. 흥미 없는 일이라면 저는... 좀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좀 하기 싫은 일이면...

**그니까 집안일 이런 거 말고, 과제나 공부... 저는 안해요. 그런 거...**

봄이에게 있어서 공부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꿈과 공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봄이는 흥미가 없는 공부는 무조건 하지 않거나 미룬다고 하였는데, 학업미루기행동의 동기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 중에서 흥미와 미루기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학습과정에서 흥미를 갖지 못한 학습자들이 과제에 대한 거부감으로 미루기행동을 더욱 빈번하게 나타낸다고 하였다(Blunt & Pychyl, 2000). 왜냐하면 흥미는 성취목표,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더불어 학습과정에서 학습자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우연경, 김성일, 봉미미, 2014)이기 때문이다.

**나. 가르치는 선생님이 따라 달라져요.**

선생님도 그런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요즘에... 사람을 대하는 거를 잘 모르시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은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라도 엄청나게 상대한테 상처를 잘 입힌단 말예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을 상대할 때, 상당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니까 어떻게 상대해야 될 지 다 알고 있지만 제가 그렇게 상대해주기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저는 더 그냥... 맘을 단죠.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면 저는 안 좋은 과목이라도 하죠.

청소년 학습자의 특성은 학습과정에 있어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학습과정에 있어서 환경이란 교실의 분위기나 친구들, 교사, 부모와의 관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봄이는 교사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공부나 과제의 수행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지식적이고 권위적인 교사인 경우에는 마음의 문을 닫는 반면,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교사인 경우에는 공부하기 싫은 과목이라 할지라도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 다. 미루는 것도 계획이 있어요.

그니까 제가요, 공부하는 것도 완전히 시험 치기 직전까지 몰아붙여 가지고... 공부를 안하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괜히 좀 일찍 하다가 흐지부지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날짜를 미뤄놓으면 그 때는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지금 안하면 절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때 되면 할 수 밖에 없어요. 그 때 안하면 못하니까... 그래서... 네. 미루는 것도 저는 계획이에요. 저는 미루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때 알았죠. 애초에 내 방식은 뭐라 해야 되지? 꾸준히 계속 공부하면 좀 질리는 스타일이라서, 전 항상 놀기 위해서 공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미루는 것도 계획이 있어요.

봄이는 시간계산 뿐만 아니라 컨디션도 계산해서 베퉼치기를 한다고 하였다. 봄이는 이러한 자신만의 방법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고 열심히 하면 잘 할 수 있다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도 컸다. 이는 학업미루기행동이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행해질 경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유형의 미루기행동을 능동적 미루기행동(active procrastination)이라 칭하고(Chu & Choi, 2005), 이것은 미루기행동의 부

정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수동적 미루기행동(passive procrastination)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봄이는 미루기행동이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2. 여름이의 이야기

### 가. 시험 전 일주일, 충분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한 시간

시험 치기 일주일전... 그렇게 남았으면, '어... 시간 충분하네!' 이려고, 어떻게 생각하면, '심각하다, 지금! 지금 시간이 없다!' 이러는데, 갑자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어, 시간이 남을 수도 있겠다!' ... 또 미루거든요? 그게 계속 반복돼가지고... 또 한 번도 안보고 시험 치는 과목도 많았고,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죠.

여름이는 시험을 앞둔 일주일에 대하여 인식되는 시간의 길이가 자신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충분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여름이는 해야 할 공부를 미루었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다급해지면서 학습의 효율이 떨어졌다.

어느 정도까지 저도 미루면 이 정도쯤이야 뭐... 할 수 있다! 이려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해버리고... 근데... 막상 해보면 그것도 안돼요.

만성적으로 미루기행동을 보이는 학습자들의 시간 관리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이들은 과제 완료에 필요한 시간을 과소 추정하거나(Aitken, 1982), 과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탐색에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Ferrari & Dovidio, 2000), 마감시간 직전에 과제를 시작하는 경향(Lay & Burns, 1991)이 있다는 것이다. 여름이가 체감하는 시험 전 일주일의 여름이의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시간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일주일의 시간이 여름이의 학업 수행에 대한 판단과 결정 그리고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나. 저는 다른 애들보다 더 꼼꼼히, 다 봐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다른 애들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비교적... 그래가지고, 시험... 이제 고등학교 첫 시험 치고 다음부터는 이제 막 기간을 정하거든요? 3주... 적어도 나는 애들보다 더 걸리니까, 더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니까 3주? 뭐, 이렇게 잡고 나중에 한 달도 잡고 해야겠다. 이러거든요? 전,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안하고... 그리고, 저는 또 다른 과목 친 다음에 내가 조금이라도 해 놓은 거 있으면 그냥 여러 가지로 조금씩 다 공부해가지고 점수 조금씩 받는 게 아니고 저는 한 과목 조금 해놓은 게 있으면 그걸 그냥 완벽하게 하고 다른 건 포기하고 그렇게...

여름이는 꼼꼼하고 완벽하게 공부하는 학습 습관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공부해야 할 과목 수도 많아졌고 난이도도 더 어려워졌지만 여름이의 학습 습관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학습의 효율성은 낮아진 반면 학업미루기 행동은 더 심해졌다.

또 처음에는 3주정도 잡고 했는데, 기간이 점점 더 줄어들어요. 거의 저도 벼락치기... 해도 1 주? 길면 2 주인데, 평일 날은 거의 학교 갔다 오면 뭐, 집에 오면 밤이고 그래가지고 거의 평일 날 한 개도 못하고 주말에 하는 게 다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진짜 열심히 막 해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더 심해진 것... 더 할 게 많아지고, 시간은 부족하고, 학교에서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여름이는 평일에는 거의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하였다. 자율학습이 끝나면 일주일에 2~3번 학원에 가야하고 밤늦게 귀가하는, 보통의 우리나라 고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여유가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었다. 공부할 시간은 부족한데 시간 활용은 잘 하지 못해서 고등학교 진학한 후 학업을 미루는 행동이 더 심해진 것 같다고 여름이는 말하고 있었다.

다. 부모님의 간섭을 많이 받다보니까 그 때부터 미뤄왔는데...

중학교 때는 간섭이 진짜 심했어요. 간섭을 많이 받다 보니까 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때부터 미뤄왔는데 고등학교 때는 또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보다...

여름이는 중학교 때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고, 학업미루기 행동도 그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학습자들은 부모의 지나친 압력과 통제에 대한 수동공격적인 방법으로 미루기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Flett, Hewitt, & Martin, 1995)고 한다.

그런데, 여름이의 부모님은 여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름이의 학습에 대한 간섭을 하

지 않으셨고, 그것이 여름이에게는 오히려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아서 학업미루기행동이 더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성취기대와 자율성을 침해하는 태도는 자녀로 하여금 수동적인 태도를 지니게 할 수 있다(Ferrari, 1994)는 이론적 근거에 입각하여 살펴보면, 여름이는 중학교 때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하여 학습과정에서 수동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고등학교 진학 후 능동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루는 행동이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3. 가을이의 이야기

#### 가. 그냥 일단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공부도 자기 꿈이 있으면 왜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꿈이 없으면 공부도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꿈이 있으면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이제 열심히 할 텐데, 자기 꿈이 없으면 강 방향도 못 잡고, 공부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략)

일단 원래 처음은... 뭔가 모르게 어느 샌가부터 제가 정한 건 아닌데 꿈이 의료선교사였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어느 샌가부터 내가 내 꿈은 그거다! 이라고 있었는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한 학기를 해보고 (웃음) 점점 현실이 다가오잖아요?

중학교 때까지 가을이의 꿈은 의료선교사였다. 중학생 때 교회에서 해외 의료선교여행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주위에서 가을이에게 의료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었고, 그 이후로 가을이의 공식 꿈은 의료선교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자 막연하게 생각했던 의료선교사의 꿈을 실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그걸(의료선교사)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 우선 제일 먼저 들었고, 또 공부도 하다보니까 너무... 내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있겠지만,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잘하는 애들은 진짜 엄청 잘하고, 중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막 다해서 오는 애들도 있고, 뭔가 그런... 아, 나는 의사... 되려면 서울대보다 백세다는데, 그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첫째로 들어가지고, 어...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계속 그 상태로 있다가, 있다가... 여름방학 때 뮤지컬을 했었잖아요? 그걸 하면서 그냥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 때부터 막... 내가 뮤지컬을 하고 싶다!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뮤지컬 배우가 돼야겠다!**

가을이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의료선교사 대신에 우연히 여름방학 때 뮤지컬에 참여하게 되면서 뮤지컬 배우의 꿈을 가지게 되었다.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해서 가을이는 극단에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부모님께 허락을 구했지만 가을이의 부모님은 가을이가 뮤지컬 배우가 되는 것을 반대하셨다. 의료선교사의 꿈도 뮤지컬 배우의 꿈도 포기해야하는 상황에서 가을이는 막연하게 공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공부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제가 막 약간 주위의 그런 것도 있어서 의료선교사가 되고 싶다. 이런 거...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냥 그건 꿈일 뿐이고... 부모님은 공부... 쪽으로... 아, 그냥 일단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깐, 일단 공부라도 해야겠다! 했는데, 공부도 잘 안되고 해서... 일단은(웃음)

동기이론 중에서 최근에 중시되고 있는 미래 시간 관점 이론(future time perspective theory)은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고 가정하고 있다(문병상, 2011). 미래 목표 설정이 학생들의 학습과정 전반에 걸쳐 동기(motivation)를 불러일으키고, 정보처리수준, 지속성 그리고 학업성취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즉 미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진보하는 정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학생들은 미래와 현재간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학생들보다 학습동기와 학습 지속성이 높았다(Simon et al., 2004). 가을이는 의료선교사가 되겠다는 목표가 현재의 관점에서 열심히 노력해도 성취될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한 인식과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는 목표 또한 부모님의 반대로 무산되자 학습에 대한 동기가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나. 습관이란게 진짜 무서운게, 그게 아직까지도...

중학교 때는 과제,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 이런 거는 꼬박꼬박 해갔었는데, 중학교 때, 시험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중학생 때부터 저는 공부습관이 잘못 잡혀 있었던 게... 습관이라기보다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게 아예 안 잡혀 있었거든요. 중학생 때, 처음에 막 들어가서 시험을 쳤는데, 공부를 진짜 수업시간에 하는 것만 듣고 공

부 안하고 쳤는데도 점수가 꽤 괜찮게 나와서, 뭐... 놀대로 놀고 공부  
는 수업시간만 대충 들으면 되지! 하면서 그 때부터 그냥 시험 칠 때  
마다 하루 전날에 책 한번 펴보고 시험치고 이랬거든요? 그 습관이란  
게 진짜 무서운 게 그게 아직까지도...(중략)

이게 진짜 머리로 알겠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구나! 이  
렇게 그냥 공부도 미루고, 미루다 보면 진짜 고등학교의 생활에 있어  
서 성적이 그냥 완전 바닥을 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습관이  
3년 반 동안 계속 쪽 그래왔던 거라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시작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가을이는 중학교 때부터 시험공부를 따로 하지 않고 시험을 쳤다고 하였  
다. 처음에는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수업시간에 들은 내용을 기억  
해서 시험을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쁘지 않게 나오자 그 때  
부터 가을이는 시험공부를 따로 하지 않고 시험을 치는 것이 습관처럼 되  
었다고 했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 후 첫 시험을 치고 나서 중학교 때 처  
럼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중학교 3년 내내 해왔던 공부 습  
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고 공부하는 방법도 여전히 모르는 채로 고등학교  
생활은 계속 되어져 가고 있었다.

다. 벼락치기를 저는 해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니까 이게 한마디로 의지가 부족한 거...쥬. 그래서 벼락치기도 할  
때는, 어... 벼락치기를 저는 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  
면 그냥 안하면 아예 안하고, 하면 조금... 그래도 조금 주기적으로 그  
냥 몇 번 보고, 근데 영수(학원)를 다니니까 다니는 거는 그래도 평소

에 하고, 좀 열심히 따로 그래도 수학같은 경우에는 가끔 따로 해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른 과목들은 진짜 아예 안보는 과목들은 진짜 시험 하루 전날까지도 책 안펴요. 저는 그냥...

가을이는 학원에서 영어와 수학을 배우는데, 학원에서 배우는 과목은 그래도 시험 치기 전에 공부를 하지만 다른 과목들은 책도 안 펴고 시험을 치기도 한다고 하였다. 시험 치는 도중에는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시험 점수를 받고나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가을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습적인 문제점들이 의지가 약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가을이는 미루기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 중 하나인 ‘해야 한다’는 지각이 결여되어 있다(Lay, 1995)고 보여 진다.

#### 4. 겨울이의 이야기

가. 그건 제 의욕 과다인거죠.

제가 의욕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애들이 “와! 니 진짜 열심히 한다!” 할 정도로 진짜 뻥뻥하게 적어놔요. 근데, 제가 의욕이 너무 크니까 제가 또 수학이나 이런 거에 한 번 이해가 안되면 아예 진행이 안되는 스타일이란 말예요. 이걸 꼭 해야지 넘어가는 스타일 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한 개 안되면 하루 종일 수학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되니까 뒤로 밀려지는 거예요. 그건 제 의욕 과다인거죠.

겨울이는 공부에 대한 의욕이 많아서 공부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찾아서 보고, 도움이 될 만한 학습 방법을 따라서 해본다고 하였다. 계획표에도 너무 뻑뻑하게 해야 할 것들을 적어놓기 때문에 오히려 뒤로 밀려지고, 계획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어어... 못했네! 못해서 어떡하지? 하고... 또 이렇게 다 짜고 그런데 저를 알아야 하는데 나는 수학에 많은 시간을 들고 이런걸 알아야 되는데, 그...제... 저를 그냥 초월하려고 하는 거죠. 제 계획을... 그래서 저는 저를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겨울이는 자신의 학습 방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의욕은 높고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계획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는데,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밀려지면 스스로에게 실망이 크다고 했다.

목표 세우기, 우선순위 정하기, 계획하고 실행하기, 평가하기는 시간 관리의 구성요소이다(박동혁, 2006; 이원휘, 2000; 이정숙, 2005). 이러한 시간 관리는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학업의 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술이다. 왜냐하면 학업의 과정에서 시간 관리의 실패는 학업미루기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간 관리의 맥락에서 학업미루기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들은 시간을 과소평가하고 시간을 조직화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McCown, Petzel, & Rupert, 1987)는 것이다. 겨울이가 목표를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이러한 시간 관리 방법을 배운다면 학습의 효율성이 커질 것이다.

**나. 정신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배운 거 바로 복습! 하루하루 배운 거 복습! 복습! 복습! 해가지고 시험 쳤어요. 근데, 이번에 하루 전에 벼락치기한 게 시험 더 잘 나왔어요. 좀 웃기잖아요? 저 진짜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게 맞나? 진짜 맨날 맨날 공부한 거보다...**

**그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 그 때는 내가 무조건 그니까 정신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시험을 앞두고 매일 매일 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과목보다 오히려 하루 전날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던 과목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은 겨울이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렇게 된 원인을 생각해본 결과, 정신력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겨울이는 시험 치기 하루 전에 최절정의 벼락치기 경험, 즉 몰입과 유사한 경험을 하였고 좋은 성과도 낼 수 있었다. Csikszentmihalyi(1990)은 몰입이란 행위에 깊게 빠져서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될 때를 일컫는 심리적 상태라고 하였다(서은희, 김은경, 2012에서 재인용). 몰입과 미루기행동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미루기행동의 결과로 학생들이 벼락치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 몰입과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Brinthaupt, & Shin, 2001).

**다. 제가 할 수 없는 양이면 미루면 안돼요. 미루면 망하는 거죠.**

**기타 암기과목은 미루고, 수학기랑 국어, 영어 이거는 공부를 해야 돼요. 평소에 해야 되는 과목과 벼락치기를 해서 효율이 높은 과목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번 기말고사 때 알았기 때문**

에 과학을 맨날 맨날 할 바에는 수학 조금 더... 안되는 것 하고, 했다가 미루는 거, 과학을 하고...

어느 정도 제가 할 수 있는, 그니까 시험 치기 전에 한 시간 남았는데, 그 안에 제가 이 책 내용을 다 못 읽는 그 정도의 양이면 미루면 안돼죠. 미루면 망하는 거죠.

겨울이는 벼락치기로 공부를 더 집중력 있게 했던 것과, 그 결과 성적이 더 좋게 나왔던 경험을 토대로 평소에 미리 공부해야 하는 과목과 벼락치기를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 과목을 따로 분리하게 되었다. 공부해야 할 분량이 자신의 공부 속도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는지도 미리 계산을 해서 벼락치기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겨울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인식과 높은 동기, 그리고 몰입으로 인하여 최소의 시간에 최대의 학습을 이끄는 계획적인 벼락치기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 5. 하늘이의 이야기

가. 저는 공부를 왜 미루냐면요... 무모한 자신감?

저는 심각해요. 다른 애들도 그렇지 않을까? 저는 진짜, 다른 애들도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숙제가 있으면 숙제를 해야 돼요. 근데 하기가 싫잖아요? 최대한 끝까지 미뤄놔요. 진짜 잠이 오고, 이제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그 새벽에... (중략)

**애들이 보면 신기하다고 하는데, 애들이 “야! 이거 언제 했는데?” 물어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끝냈다. 어제 밤새서...” 하면 애들이 놀라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제가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약간 그거를 믿고... 진짜 무모한 자신감! 근데, 저도 요새 조금... 벼락치기해도 전보다는 약간 만나와요.**

하늘이는 스스로 심각하게 미루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된 미루기행동을 지금까지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뤄서 완전한 과제물이나 시험성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하늘이의 미루기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다. 하늘이는 해야 할 일이 있어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간 전까지는 매우 여유롭다고 했다.

하늘이는 자신이 학업미루기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모한 자신감 때문이라고 했는데, 무모하다는 것은 생각이나 계획이 신중하지 않고 조심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형용사이다. 바꾸어 말하면, 미루기행동을 해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모호하게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하늘이는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학습량이 많아져서 예전보다 벼락치기를 해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강 내를 너무 믿는, 나에 대해서만 너무 관대하고, 너무 자만하고, 그게 너무 안좋아요. 지금도 공부를 해야되는데 ‘어쨌든 나는 나중에 하게 돼있어.’ ‘나중에는 하면 되겠지!’ ‘1년이 늦어지든 2년이 늦어지든 어쨌든 나는 할거야!’ 아... 좀 안좋아요. 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자신감!**

Mandel(1997)은 학업미루기행동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낙관주의와 모호

함이라고 하였다. 즉 그들은 미래와 변화에 대해 모호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모호한 상태로 있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하늘이는 나중에는 할 수 있고, 하고 싶어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으면서 미루기를 반복적으로 했다.

#### 나. 하고 싶은 걸 먼저 하거든요.

이게 저한테 진짜 너무 마이너스가 되는데, 저도 안미루고 좀 제발 좀 하고 싶은데, 끝...까지 미루고, 하고 싶은 걸 먼저 하거든요. 하고 싶은걸 먼저 하고... 원래, 하기 싫은 걸 먼저 해놓고 나면, 제가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맘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고 여유가 있고 완성도도 높고...

이런거 있잖아요? 그니까 일단 집에 오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수학을 하고, 이거를 하고, 나중에... 일단 지금은 하기가 싫으니까 나중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빼놓고 일단 드라마를 보고 나중에 하자. 그러면 그 때부터 잠이 오거든요.

하늘이는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면 마음이 편하고 여유가 있고 완성도도 높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해야 할 일은 끝까지 미루다가 급하게 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하늘이도 이것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알고는 있지만 잘 되지 않는 것, 또는 반복적으로 의도와 실제 행동의 불일치를 경험하는 것은 만성적인 미루기행동의 특성이다(Ferrari, Johnson, & McCown, 1995; Ferrari & Pychyl, 2000b). 하늘이는 면담도중

에도 “제발 좀 안미루고 하고 싶다.” 는 말을 습관처럼 하고 있었다.

#### 다. 실력이 부족해서 미뤄져요.

그니까 제가 원래 스스로 공부를 하는 습관이 한 개도 안 배겨 있어 가지고, 공부를 중학교 때 하나도 안해서... 그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뭔지 모르고 나뒀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스스로 공부를... 1학년 때도 그냥 따라가는 공부를 하고... 힘들었어요. 그냥... 공부하는 것도 다 습관이 붙으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고,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막상 할라하다 보니까는 그냥 애들이 이거 한다하면 이거 해봤다가, 저거 한다하면 저거 해봤다가 하는데... (중략) 내가 공부를 애들보다 공부한 시간도 늦었고, 이미 몇 년을 조금 버리고 온데다가, 이제 시작하는 거고...

하늘이는 중학생 때까지 단거리 육상선수였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두고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다. 중학교 3년 동안 공부를 거의 하지 않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 주요 과목에 대한 기초 지식, 공부습관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로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다고 했다. 다른 아이들의 공부 방법들을 따라서 해보면서도 확신이 없었고, 실력도 생각처럼 많이 향상되지 않았다고 했다. 시험일정이 나오면 계획표를 작성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자동적으로 계획보다 미뤄지게 되었다고 한다. 하늘이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왔고, 똑같은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하늘이가 하루 종일 걸려서 할 과제나 공부도 금방 해버린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가 볼 때는 개네들은 진짜 그냥 최소 중학교 때부터 그냥 습관으로... 개네들은 쉬는 시간, 자습 시간에도 안자요. 지가 오늘 해야 될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개네들은 좀 신기해요. 똑같은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내랑 일단 비교 자체가 안되지만, 같은 사람으로 비교해 볼 때 한 시간을 개네들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요...

하늘이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예를 들면서 자신과 다르게 그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공부 습관이 잡혀있고, 시간도 효율적으로 쓰고, 실력도 있어서 미루는 행동을 하지 않는 신기한 아이들이라고 말하였다.

## 6. 바다의 이야기

가. 미루나 마나 똑같다!

제가 보면 과목 편차가 되게 심해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되게 되게 하고 싶어하고, 그니까 다 해야 되는 거면 제가 묵묵히 다 한단 말예요. 근데, 하기 싫은 거는 안해서 이렇게(손을 크게 벌리면서) 차이가 난단 말예요. 잘하고 좋아하는 거는 벼락치기를 하든, 뭘 하든 잘 나와요. 이게 좀 되는데, 안되는 거는 정말 해봤자 소용도 없고, 안되고... 미리해도 엄청 제가 원하는 만큼 오르지 않는단 말예요? 그래서

좀... 그런 막 미루는 그런 것도 미루나 마나 똑같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진 적도 있고...

바다는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의 편차가 심하다고 하였다. 좋아하는 과목은 어떻게 해도 성적이 잘 나오는데 그것에 반해서, 싫어하는 과목은 미루지 않고 미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제가 영어를 하나하나 반타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도 반타작이 나와서 진짜 거의 그냥 버리다시피 거의 많이 안봤어요. 근데... 성적이(웃음)... 성적이... 완전 폭망! 담임 쌤이 영어 쌤인데, 제가 OMR 안 밀렸는지 확인까지 했어요.

나. 왜 해야 되지?

꿈을 가지고 있고, 인문계 고등학생이라면 꼭 공부를 해야 되는...게 아닐까요? 배워야지 지식이 쌓이고, 그렇긴 한데, 일단 현실상 저희, 우리나라 상황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를, 그니깐... 그것, 그것으로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중략) 공부 가 행복의 다는 아닌데 대부분이고, 꿈을 이루려면 일단 대학을 가야 되고, 그러니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니깐...

처음에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안하고 '왜 해야 되지?'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게으른 것도 있고 귀찮아서 안하는 것도 있는데, 특히 그거를 해야 하는 동기나 뭔가가 없으면 하기 싫고 그래서 미뤄버리는 것 같아요.

바다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 지에 대한 이유로 꿈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인문계(일반계)고등학생이라면,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행복해지려면,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에 가기 위해서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이니 까 공부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공부를 해야 하는 장면에서는 ‘왜 해야 되지?’라고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는 하고 싶지 않고, 미루게 된다고 하였다.

학습자는 대부분 내재적 동기 또는 외재적 동기로 학습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활동 그 자체를 위해 참여하고자 하는 내재적 동기로 인해 어떤 학습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그 활동을 더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재적 동기는 학년에 상관없이 학습, 성취도, 유능감 지각과 정적 상관을, 불안과는 부적 상관을 갖는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Gottfried, 1985, 1990; Lepper et al., 2005).

바다가 대답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들이 학습 자체가 즐겁거나,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등의 내재적 이유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이니 까, 대학을 가려면, 먹고 살려면 등의 외재적인 이유에서 출발한 것들이었다. 그래서 바다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마감기한에 의해 행동을 강요당한다고 느끼는 맥락에서는 공부를 해야 하는 동기가 감소되었던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 다. 친구들 그리고 스마트폰

**저는 친구들이요. 친구를 좋아해서,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라가지고 공부를 만약 하고 있더라도 친구가 말을 걸거나 아니면 놀자! 이러면 앓! 그래! 이래가지고 친구가 저도 중요하다고 느끼... 이게 공부도 중요하다고 마음속으로 느끼면서도 친구가 막상 오면 몸이 먼저 반응**

해가지고 친구랑 같이 놀고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 볼 게 진짜 많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방을 옮겼어요. 와이파이 안터지는 방으로... 이게 옮겨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와이파이기가 하나씩 이렇게 뜨거든요? 그걸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완전... 그것 때문에 그렇고... 페이스북도 여기 들어가 보고 저기 들어가 보고, 드라마 몰아놓고 다 보다가 와이파이 다 끊어놓고...

바다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놀자고 하면 하던 공부를 중단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게 된다고 하였다.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친구들이 오면 그 순간에 몸이 먼저 반응을 한다고 했다. 또한 스마트폰도 학업을 미루게 하는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요인인데, 학교에서는 폰을 담임선생님이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사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는 일은 없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몇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것은 다반사라고 하였다. 그래서 와이파이기가 터지지 않는 방으로 방을 바꿔도 봤지만 와이파이가 잡히는 곳을 찾아서 방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기도 했다고 한다. 바다는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몇 시간씩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보거나 다운로드해놓은 드라마를 보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주변 환경의 방해 자극을 차단하고 공부에 대한 의지를 보호하는 것은 바다뿐만 아니라 보통의 청소년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바다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 7. 강이의 이야기

가. 오늘부터 딱 시작!

계획... 하기는 하는데요. 초반에 좀 하다가 뒤에 미루고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월요일부터 시작해야지! 이래하는데... 그냥 하고 보면 시험 일주일 전이고, 그래서 다시 또 시험기간에 또 다시 와... 이번에 계획 완전 세워서 해야지! 하는데, 세웠다가 실패하고 또 세웠다가 실패하고 하는데 이번에 진짜 계획을 세웠거든요? 오늘부터 딱 시작하는 거...

강이는 매번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처음에만 열심히 하다가 뒤에는 대부분 미뤄져서 또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되풀이 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계획을 세우면 계획을 세운 그 날이 아니고,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또는 내일부터 시작하기로 결심을 하였다.

나. 학교에서는 잠, 집에서는 TV

1교시 되면, 사실 영어듣기 때부터 자거든요?(웃음) 그 때, 영어듣기 때라도 자면 1교시까지 버티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 잠이 와서 저도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데, 나도 모르게 자고 있고 그러면... 저도 놀래요. 가끔... 엇, 내가 눈을 감고 있었네... 하루에 학교에서 자는 시간은 짬짬이 자는 것 하면 한 2 시간?

가끔 생각하면 너무 한심해요.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드라마를 다 챙겨보고 있고... 제가 시험기간 때 진짜 그냥 재미없는 거 봐도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아, 이거 일단 접어두고 시험 끝나고 나면 바로 다 봐

**야지! 하고 공유도 해놓고 그런단 말예요? 그거를 시험 끝나면 안봐요. 막상 보기가 또...**

**근데 사실 유혹을 이겨낸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유혹하는 건 TV보다도 잠인 것 같아요. 왜냐면 TV보다가도 잠오면 그냥 TV 못보거든요? TV 보다가도 그냥 결말 못보고 지나가는...**

강이의 수면시간은 평균 하루에 4~5시간 정도라고 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등교를 하면 바로 영어듣기를 하는데 그 때부터 잠이 쏟아진다고 했다. 특히 수동적으로 선생님의 설명을 듣기만 할 때 더 잠이 오는데, 강이는 조절할 수 없는 잠 때문에 학교에서 해야 할 그날의 공부가 미뤄진다고 하였다. 한편, 집에 돌아와서는 TV 때문에 공부가 미뤄지는데, 특히 시험기간이 되면 평소에 재미없었던 프로그램도 너무 재미있게 느껴져서 공유를 해놓고 시험 끝나면 꼭 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막상 시험이 끝나고 나면 보기가 싫어진다고 했다.

그러나 대체로 강이는 공부를 미루게 하는 유혹들을 이겨낸 적이 별로 없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잠을 잔다거나 TV를 시청하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공부보다 훨씬 덜 중요하지만 그 순간에는 강이에게 단기적인 보상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강이처럼 공부대신에 잠이나 TV 등의 단기적인 유혹에 이끌리는 것을 자기통제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기통제란 눈앞의 유혹을 물리치고 장기목표를 추구하며 지속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을 말하고, 이런 행동과 반대되는 것을 충동성이라고 한다(Logue, 1988).

Schouwenburg(1994)는 자기통제의 결여는 미루기행동과도 관계가 깊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강이의 미루기행동 또한 자기통제가 결여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다. 사실 여학생들 가장 큰 문제점은 필기에 너무 집착해서 그래요.

저는 살짝 필기에 집착하거든요? 아니, 딴 애들처럼 수업시간에 잠이 오는데 필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글씨가 예쁘게 안되거든요? 그럼 저는 그냥 연필을 댕요. 왜냐면 그 지우는데 더 오래 걸리니까... 통일감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형광펜을 하나 사도 똑같이 그 색깔만! 그 종류만 사거든요.

아니, 수학선생님이 이걸 병이라고 했어요. 그래, 페이지를 적고 옛날에는 더 심했는데... 옛날엔 날짜까지 적었거든요? 그래도 요즘은 날짜는 안적는데... 딱 페이지하고 예제, 문제 적고 또 문제는 연필로만 풀어야 돼요.(웃음) 매길 때도 맞으면 동그라미, 틀린 건 X, 고친 거는 이렇게 세모를 해요. 혼자서 고친 거, 답지보고 고친 거는 별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제가 숙제를 그런 식으로 하다가 좀 오래 걸리잖아요? 아, 나는 이만큼 했네!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시간만 보고 아, 좀 했네! 이러면서...

강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이 필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통일감 있게 잘 정리된 노트 필기를 보면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필기하는 것 자체에만 목적이 있고, 그렇게 잘 정리된 노트가 공부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이는 필기에 집중하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고 마치 공부한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다고 했다.

또 그걸 언니한테 자랑을 하거든요. 나는 이래한다면서... 언니가 니이거를 다시 보거나 하나면서 그러거든요? 솔직히 공책에 한 이유는

다시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풀었나 보려고 하는 건데, 사실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안하거든요? 그게 제일 문제긴 한데, 그니까 필기에 집착하는 거, 그거를 버려야 되는데...

## 8. 달이의 이야기

가. 저는 저 스스로 제가 안되는 거 잘 알아요.

달이는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었고 그 결과 자기효능감이 낮았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뭔가를 해도 잘 못해내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스스로 찍고 있었다.

제가 엄청 많이 그렇게 애길 했었잖아요? 저는 저 스스로한테 실망을 일치감치 했었어요. 스스로에게 일치감치 실망을 하고 내가 얼마만큼의 그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가지고 나는 진짜...

그런데 달이는 중학교 3학년 때 인문계(일반계)고등학교에 진학을 위해서는 성적을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단기간 열심히 공부한 결과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니까 중 3 때, 제가 고등학교 문제 때문에 진짜 이 악물고 공부했거든요? 그니까 원래 한자과목이 있었는데, 한문은 진짜 거의 안봤거든요? 근데 한문을 쳐가지고 20 몇 점에서 70 몇 점까지 올랐었어요. 제가...

달이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중 3때 ‘이 악물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원하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자신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지만 고등학교 진학을 해보니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해야 하는 과목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의욕이 없어지면서 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악물고, 진짜 이 악물고 하면 될 걸 저도 아는데, 그게... 과목이 한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게 많으니까 안되는 거예요. 딱 된다는(하면 된다) 느낌이 올 때가 있는데, 진짜 그게 너무 드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너무 한심스러워가지고 기도를 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 나는 진짜 의욕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할려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강 없는거 주님께서 잘 아실 거라면서... 전 공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나한테 의지력을 달라고는 기도를 해봤는데 근데 그게 안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진짜 어떡하나?**

달이는 공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과 진로에 대해서 길을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실망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에 대한 의지가 생기거나 전반적인 학습의 효율이 향상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런 달이를 주변 사람들도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음...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자극은 받되 안되는... 저한테 막 이래요. ‘야, 이제 해야된다. 진짜 해야 된다. 진짜 안된다.’ 저한테 제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나도 니보다 더 잘안다고... 근데, 안된다!’ 이런 거예요.**

학업을 미루는 학생들은 최소한의 양의 과업수행을 통해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더 높은 점수를 얻거나 미래에 더 많은 기회를 가지기 위해 일을 더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에게 미루기는 미래에 대한 양가적 표현이자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임시 해결책이다. 학업을 미루는 학생들의 미루기에 대하여 자신들보다 정작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이 걱정한다(Mandel, 1997).

#### 나. 저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불을 보고 있는 스타일!

나도 나를 조금씩 자각하고, 거울로도 제가 저를 혼내본 적도 진짜 많아요. '니는 진짜 생긴 것도 완전 공부해야 되게 생기지 않았나? 니는 뭐하노, 지금?' 나를 혼내거든요? 나를 내가 혼내고 '미안하다.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편지도 써봤어요. 근데 3일이 끝임. 근데 적은걸 보긴 보는데 딱 오는 게 없어요. 그니까 뭔가 딱 중간이 없어요. 처음엔 할 수 있음! 딱 이려고 또 빠질 땐 아... 실망! 그런거 있잖아요? 맘먹는거... 지금이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거... 저는 근데 '해봤자...' 이런 느낌이 압도적이고...

달이는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야단을 쳐보기도 하고, 편지를 써보기도 했지만 작심삼일로 끝났다. 처음 마음을 먹었을 때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고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느낌을 압도적으로 받는다고 하였다.

근데 점점 반타작에서(성적이)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는게 보여요. 그거를 제가 느낄 때마다 엄청 자괴감이 들거든요? '아... 진짜... 니가

그렇지! 나는 이래도 정신 안차릴걸 안다!’ 이렇게 진짜 저는 저한테 실망을 일치감치 해버려 가지고... ‘니 내신 잘 받으면 뭐하는데? 성적도 안되는게...’ 약간 이런... 그래도 내신(성적 대비 공부)을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저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불을 보고 있는 스타일! 답이 없죠.

달이의 경우 자기평가 또는 자기인식이 낮고 자기효능감 또한 낮기 때문에 공부 이외의 영역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자책을 한다거나 불안감, 죄책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다급한 순간, 즉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게 되었고 이런 스스로를 달이는 ‘답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다. 게으름이라는게 진짜 작아보이는데 크거든요?

해봤자 안된다! 라는 그게 이미 틀에 박혀가지고 잘 안벗어나 지더라도요. 그런 마음과 생각! 게으름은 기본... 알게 모르게 본인 밑바탕에 배인 것 같아요. 게으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게으름을 이겨내는 거조차 대단한거고, 게으름이라는게 진짜 작아보이는데 진짜 크거든요? 마치 겨자씨같이... 진짜 장난아니게 게으름이 밑바탕에, 자신에 대한 실망을 일찍 한 거와 그리고 딱 뭔가 하자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결국엔 안되게끔 내 자신이 만드는 것도 있고... 뭔가 딱 잡혀 있어가지고 안벗어나지더라구요. 진짜 심해요.

달이는 자신의 밑바탕에 게으름이 있다고 했다. 게으름은 작아 보여도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끌고, 잘 벗어나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달이

는 자신이 게으르다는 인식, 즉 성실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성실은 충실, 자기관리, 책임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Schouwenburg et al., 2015). 그러므로 성실하고자 하는 노력은 자기관리의 노력이며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달이는 의지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게으름이 ‘안벗어나지고’, ‘안되게끔’ 된다고 말하고 있었다.

## 9. 별이의 이야기

가. 계획을 너무 촘촘하게 세워서... 미룬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학교 애들 대부분이 그래요. 애들 스터디 플래너에 타이프하게 계획을 잡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니까, 그럴 생각도 다 있으니까... 근데, 너무 계획이 큰 거죠. 계획이 우리가 쪼갠 시간보다 우리는 훨씬 더 시간을 넓게 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계획을 막 세우고 공부를 하다가 그게 안되니까, 그냥 고 3 때는 그냥... 큰 계획 없이 오늘은 이거, 크게만 적고 세세한 거는 안세우고... 그러니까 덜 미루더라고요. 계획보다는 그냥 수행을 먼저 하는 거죠.

별이는 중학교 때 성적상위권의 학생들이 들어가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별이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은 대부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학습계획도 열심히 짰다고 한다. 다른 학생들처럼 별이도 의지를 가지고 많은 계획을 잡았지만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계획 때문에 그것을 실천으로 다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

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는 자세한 계획보다는 꼭 해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만 계획을 잡았는데 오히려 미루는 것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니까 미룬다기보다 저는 계획을 너무 촘촘히 세워서, 많아서 계획이... 내가 하루에 집중할 시간보다... 그래서 저는 미룬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니까 저희는 내신에 죽자고 치중을 안해서 내가 해오는 그 공부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안했죠.**

별이는 아무 생각 없이 미루는 것이 아니고 내신 성적보다는 정시 성적 중심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확률이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정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는 공부는 선택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즉 별이는 미룬다는 개념이 아니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보다 계획이 많아서 미뤄진 것이고 하루에 별이가 쓸 수 있는 시간 안에서 집중할 과목을 취사선택하여 공부를 했던 것이다.

**나. 고등학교 환경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가 수업을 저녁 6시까지 하고 7시부터 12시 반까지 자습이에요. 그러면, 근데, 자습시간에도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율강좌 이런 거 따로 하거든요. 저희는 아침이 8시 10분부터 1교신데요, 7시 30분부터 영어듣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쉬지 않고 돌아가요. 학교 시간 자체가 워낙 빡빡해서 내가 오늘 배운 공부를 오늘 소화하지 못할 시간이니까... 고등학교 환경이 너무 힘들었어요.**

별이는 보통 새벽 2시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등교 준비를 했다고 한다. 평균 4시간 정도 잠을 자고 7시 30분 부터 쉬지 않고 돌아가는 학교의 시간표를 따라가야만 했다.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것은 다반사였고 그 날 배운 공부를 그 날 소화하지 못할 정도의 타이트한 시간 운용으로 인해 별이는 학교 환경이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 다. 나의 의지박약! 그 와중에도 해내는 애들은 있으니까...

그런 타이트한 시간, 나를 잠이 오게 만드는 환경도 분명히 크니깐...  
그런 거랑 나의 의지박약! 그 와중에도 해내는 애들은 있으니까! 그 자기의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애들은 있으니까... 그런 애들은 밤에 일찍 자거나, 애들이랑 애기 딱 끊고 딱 잘 시간되면 딱 자고, 그니까 그렇게 잘 시간을 꾸려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은... 저는 애들이랑 막 놀고 이러니까 밤에 한 2시? 3시? 에 자면 다음날은 그냥 뭐 수업 때도 자고, 자습 때도 자고... 그러면 할 일을 못하는 것도 있고...

별이의 학교는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였는데, 친구들과 밤늦게 까지 놀다가 그 다음 날 수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친구들은 친구들과 이야기 하던 중에도 잘 시간이 되면 하던 이야기를 중단하고서라도 자신이 계획한 시간을 지켜나갔다고 한다. 별이는 해야 할 일을 못한다거나 다음으로 미루게 되는 이유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어떠한 경우에도 해내는 친구들에 비해 자신의 의지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의지는 목표로 설정한 일이나 과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이다(박도영, 2000).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게 하는 것이 동기라면 하겠

다고 결심을 한 일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유혹이나 대안적 행위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처음의 결심을 유지하게 하는 동력이 의지이다(서은희, 박승호, 2007). 이러한 의지는 의지통제전략, 즉 인지통제전략, 정서통제전략, 동기통제전략, 환경통제전략(Kuhl, 1981)을 통해 통제할 수 있고, 학생들이 학습상황에서 의지통제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김은지, 김정섭, 2015).



## V. 고등학생들의 학업미루기 행동 경험의 의미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9명이 겪은 학업미루기 행동 경험의 의미를 중심으로 연구텍스트를 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학업미루기 행동 경험의 의미를 크게 [시간적 맥락에서의 의미], [공간적 맥락에서의 의미], [관계적 맥락에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시간적 맥락에서의 의미

#### 가. 과거 - 미루기의 시작 : 넘을 수 있는 담장

학습에는 누적, 심화, 전이, 등의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초등-중등-고등학교의 연장선에서 고등학생들의 학업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접근 방법이라 하겠다(조용환, 2009).

학생들의 학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습습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학습습관이란 어떤 학습장면에 있어서 본인이 의식하는 일 없이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학습방법을 말한다(교육학 사전 편찬위원회). 연구참여자들은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부터 매일 해야 하는 학습지를 미룬다거나 부모님의 간섭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미룬다거나 공부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미루게 되는 등의 행동 양상으로 미루기를 하게 되었

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엄마한테 혼도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수학, 초등학교 때는 시험이 쉬운데도 불구하고 제가 수학을 초등학교 때 좀 못했거든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을 못했는데 근데, 항상 전날에 해요. 아니면 그날 아침에 엄마한테 들고 와서 물어봐요. 제가 그걸 한 번도 안빠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하늘이의 이야기)

초딩 때, 눈높이 한 8권정도 미뤘다가... 저 그 때 수학에 좀 약했어요, 제가... 수학이었는데 계산문제도 한 문제, 눈높이 한 페이지 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정도였어요. 미루는 게... (겨울이의 이야기)

그런데 연구참여자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공부를 미루거나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성적이 나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습관이 문제로 인식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 참여자들의 미루기습관은 점점 고착화되어갔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넘을 수 있는 담장이 아닌 넘고 싶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갔던 것으로 보여 진다.

Schouwenburg(1995)는 미루는 사람은 학업적인 면에서 기대되는 수준에 비해 낮은 성취 수준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이며 이것은 공부훈련의 부족과도 관련된다고 하였다. 공부훈련은 학습습관의 형성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미루는 사람은 학습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가을이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을이는 중학교에 입학 후 첫 시험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따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시험을 쳤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점수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계속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공부를 따로 하지 않게 되었다.

중학생 때부터 저는 공부 습관이 잘못 잡혀 있었던 게, 습관이라기보다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게 안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 처음 막 들어가서 시험을 쳤는데, 공부를 진짜 수업시간에 하는 것만 듣고 따로 공부 안하고 쳤는데도 점수가 꽤 괜찮게 나와서... 그 때부터 뭐, 놀대로 놀고 공부는 수업시간만 대충 들으면 되지! 하면서 그냥 계속... (가을이의 이야기)

봄이도 또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었는데, 3학년이 되면서 인문계(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시험 치기 3일 전부터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한 결과 평균이 38점이나 오르게 되었다고 했다.

제가 중 3 때요, 처음 공부를 했거든요? 이제 인문계 원서 쓸 준비하는데 이 성적으로는 인문계 못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그 때가 시험 3일 전이었는데, 3일 전부터 잠 한 숨 안자고 계속 공부만 했단 말예요. 그래가지고 그 때 평균 98인가? 평균 60에서 38점이 올랐어요. (봄이의 이야기)

봄이나 가을이의 경우 중학교 때까지도 학습습관이나 태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학습태도의 형성은 초등학교 5-6학년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Bloom, 1974), 이들은 이 시기에 초등학교 학업발달과 관련된 주요 내용인 학업동기와 학업기술(권영배, 2011)에 대해 습득하지 못한 채 중학교에 진학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중학교에 진학해서는 초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Blocher(2000)가 주장한 중학생들이 획득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발달영역 중의 하나인 학업성취를 위

한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습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는 달리 별이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어떤 계기로 인하여 학습동기와 학습기술을 습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자신만의 효율적인 방법이 되었고 이 후의 별이의 학습성취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제가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저를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때 제가 너무 억울해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억울해가지고 진짜! 와!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교 때 할 수 있는 한... 몇 배의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친구들 사이가 안좋아졌을 때, 그 때도 공부에 올인했거든요. 그리고, 나만의 효율적인 방법을 알았어요. (별이의 이야기)**

별이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힘든 일을 동력으로 삼아 오히려 더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은 물론 자신만의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학습발달’이라는 개념은 인성/사회성 발달, 진로발달과 함께 미국에서 학교 상담 프로그램의 내용 요소로 사용되어졌다. 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ASCA)에서 제시한 학습발달의 첫 번째 목표는 ‘학생들은 학교생활과 전 생애에 걸쳐 효과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태도, 지식,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이다(ASCA, 2003; 권영배, 2011에서 재인용)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의 학습이 고등학교의 학습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조용환, 2009). 왜냐하면 몇몇 연구참여자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도달해야 할 학습발달목표에 대한 인식과 실제 학습상황에서의 적용훈련을 받지 못했고, 그 결과 올바른 학습습관 형성이 되지 않아 지금,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마찬가지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학업미루기행동이 부적응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에 형성된 미루기 습관이 현재의 학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 나. 현재 - 미루기 : 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고등학생들 중에서 ‘좋은 학생’이란 어떤 학생을 말하는 것일까? 일괄적으로 주어진 목표를 향해 정해져 있는 내용으로 공부를 하고, 교사나 시험출제자의 의도에 ‘나’를 맞추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자신의 생각이 들어있지 않은 자신과 분리된 지식을 함양함으로써 입시형 교육에 최적화된 학습자일까?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하기 싫지만 ‘나중’을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이며, ‘지금’은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가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지금’은 마땅한 꿈과 재능이 없어도 ‘나중’에는 생길지 모르는 꿈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대답을 하였다. 또 ‘지금’ 꿈이 없으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연구자 : 공부는 왜 해야 하는 걸까?**

**하늘 :**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좀 더 찾는... 그니까 하고 싶은 일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 나를 위해서, 앞으로 내 삶,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강 :** 현실적인 예는 대학 갈려고... 대학가는 이유는 또... 직장 얻으려고, 공부 안해도 직장이 얻어진다면 안하고 싶지만...(웃음)

**겨울 :** 현실적으로는 어... 어... 금전적... 인거...

**바다 :** 나중에 발목잡힐까봐... 꿈을 이루려면 대학을 가야되고, 그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니깐...

**달 : 진짜, 아... 공부가 전부가 돼가는 거 같아요. 그냥 사회가 저는  
내심 만들어가는 거 같아요. 공부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니가  
될 되지, 아니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틀을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애 가지고... (여학생 포커스 그룹 인터뷰)**

**연구자 : 공부를 왜 해야 할까?**

**봄 : 자신의 명확한 꿈이 아직 없으면 공부를 해야겠죠. 안그러면 나  
중에 선택할 길이 없어지잖아요!**

**여름 : 어... 그... 지가 타고난 게 있거나, 뭐, 재능 같은 타고난 게 없  
으면 뭐 공부라도 해야지... 미래를 위해서...**

**가을 : 자기 꿈이 없으면 공부도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남학생 포커스 그룹 인터뷰)**

연구참여자들에게 현재는 미래를 위한 시간일 뿐 ‘지금’ ‘이 순간’이 가지는 힘이 없었다. 학습적인 맥락에서 ‘힘’은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동기이며, 시작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완성시킬 수 있는 지속력을 갖게 하는 의지이다. 그런데, 주어진 목표가 있기 때문에 ‘힘을 내어’ 시작은 하지만 수동적으로 이끌려서 해내야 하는 일에는 ‘힘이 나지’ 않아서 결국 해야 할 일을 미루게 되는 것이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공부나 과제를 조금 미뤄도 성적에 큰 지장이 없었고, 조금만 노력을 해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한 미루기 습관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도 계속 이어졌고 막연하게 중학교 때도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 고등학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중학교 때처럼 공부를 미루다가벼락치기를 하는 것은 똑같은데, 시험결과가 중학교 때처럼 좋게 나오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공부해야 할 과목이 많아진데다가 내용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갈수록 현실은 넘고 싶지만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게 되었다.

뭔가 넘고 싶어도 안 넘어지고, 그 벽 때문에 넘기도 싫고 그런 마음... 저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불을 보고 있는 스타일... 이 악물고 진짜 이 악물고 하면 될 걸 저도 아는데 그게... 과목이 한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게 많으니까 안되는 거예요. (달이의 이야기)

정말 간절한데, 막상... 딱,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면 진짜 너무 하기 싫고 잠도 오고, 또 학교에서 진로설명회 해서 실제 막 자극을 받아도 진짜 집에 와가지고 하면 진짜 침대보면 눕고싶고, 아니, 진...짜 그렇거든요? 진...짜 마음처럼 안되는게... 조절도 안되고... 통제도 안되고... (하늘이의 이야기)

벽은 외부세계로부터 자신을 차단하고 한정짓는 역할을 한다. 사람과 사람사이를 분리시키고 관계를 단절하는 벽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두려움, 절망, 고독,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일 것이다. 그래서 달이와 마찬가지로 여름이와 가을이 또한 학업미루기행동으로 인한 반복되는 부정적인 결과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자책감을 느끼거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저는 할 일이 있는데 미루고, 막 하고 싶은거... 하고 싶어서 하면 항상 맘 편하게 못하고 항상 후회하죠. 전... 제가 열심히 하면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별로 없어요. 항상 심각하게 생각은 하는데 항상 안해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더 심해졌는데, 더 할 게 많아지고, 시간은 부족하고, 학교에서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여름이의 이야기)

이게 진짜 머리로 알겠는거예요. 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구나! 이

렇게 그냥 공부도 미루고, 미루다 보면 진짜 고등학교의 생활에 있어서 성적이 그냥 바닥을 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습관이 3년 반 동안 계...속 쪽 그래왔던 거라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시작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실천이 안되는 거죠.

(가을이의 이야기)

이처럼 노력해도 벽을 넘을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넘을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르게 되면 역설적이게도 그냥 그 속에서 안주하거나 오히려 그 곳이 주는 편안함이나 재미를 찾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연구참여자들은 재미없고 하고 싶지 않은 공부 대신 즉각적인 재미와 해야 할 일의 중압감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에 '지금'을 내어주고 있었다.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SNS, 계속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유튜브, 시험기간이면 더 재미있는 TV, 잠, 공부 아닌 공부 같은 필기에 집착 하기가 그것이다.

**달:** 망할 놈의 와이파이! 유튜브... 유튜브하면 진짜 시간이 빨리 가거든요!

**강:** 왜냐면 연관 재밌는 동영상이 계속계속 뜨거든요?

**바다:** 볼 게 진짜 많아요.

**겨울:** 제가 이번에요... 학교 다닐 때는 폐북을 안깔았거든요? 그런데 방학이라, 아... 뭐 시간도 많은데 심심한데 한번 깔아볼까? 하고 딱 깔았는데, 이제 제가 진짜 어느 순간 두 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다:** 저는 이것 때문에 방을 옮겼어요. 와이파이 안터지는 방으로... 이게 옮겨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와이파이가 하나씩 이렇게 뜨거든요? 그걸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달:** 공부 말고 다른 모든 게 다 즐거워요. 하다보면 2시간이 가 있

고...

학업미루기행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겨울이는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꼼꼼한 성격 때문에 한 문제가 막히면 그 다음부터는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미루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겠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미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별이는 실제적인 시간운용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계획을 너무 타이트하게 세워서 ‘미뤄지는’ 것이라고 했고, 봄이는 자신은 계획적으로 미루기를 하는 것이며 미루기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즉 어떤 일을 미루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미루기를 계획하고 미루기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겨울:** 저는 미룰 때도 있지만 미뤄지는 경우가 좀 더...

**연구자:** 그래? 미뤄지는 경우는 어떤?

**겨울:** 미루는 거는 손 딱 떼는 것! 그냥 놓고 싶은데 안해야지, 하루만 쉬어야지, 이런 거고... 미뤄지는 거는 하고 있는데 내 목표량을 다 못 채워서 밀려지는... 저는 하루의 휴식시간을 줄 때도 있어요. 너무 머리가 팍 찢 때, 오늘은 이거하면 어차피 집중도 안되고... 그러면 잠시 내려놓고, 이거 내려놓고 다시 시작! 이런 날도 있고...

**별:** 그니까 미룬다기 보다 저는 계획을 너무 촘촘하게 세워서, 많아서, 계획이... 내가 하루에 집중하는 시간보다... 그래서 저는 미룬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여학생 포커스 그룹 인터뷰)

**연구자:** 공부를 내가 이렇게 미루도록, 자꾸 나를 집중못하도록 하는 제일 방해가 되는 요소는 뭘까?

**봄: 음... 전 근데, 미루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 자체가 방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자기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루는 것도 저는 계획이에요.**

**(남학생 포커스 그룹 인터뷰)**

봄이는 미루는 것도 자신의 계획 하에 선택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루는 것이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Chu와 Choi(2005)가 제시한 능동지연행동의 4가지 하위요인인 ‘결과만족(outcome satisfaction)’, ‘압력선호(preference for pressure)’, ‘의도적 지연결정(intentional decision to procrastinate)’, ‘마감시간을 지키는 능력(ability to meet deadline)’ 중에 ‘의도적 지연결정’ 과 ‘결과만족’에 의한 능동적인 미루기 행동으로 보여진다.

이렇듯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기질과 학습배경을 포함한 학업환경에 따라서 학업미루기행동에 대한 관점과 드러나는 행동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업미루기행동에 부정적인 결과만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났다.

그런데, 학업미루기행동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의 미루기행동이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계획한 일들이 미뤄진다는 것은 스스로 계획을 하고 실천에 옮길 의지는 있지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에 실패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학업미루기행동의 유형에 관계없이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Silver와 Savini(1981)의 연구결과처럼 자기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목표세우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계획세우기, 자기동기화, 정확한 과제수행속도 인지, 시간관리, 모니터링 같은 자기조절전략

의 사용이 부족했다. 그러므로 학업미루기행동을 하는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을 통찰하고 통제하도록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미루기행동을 연구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미루기행동이 자신 또는 타인이 짠 일정을 따라가는 것을 계속적으로 실패하게 만들어서 산업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기술, 시간, 다른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학업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학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루는 경향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학업미루기행동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Schouwenburg et al., 2015).

학업미루기행동을 한다는 것은 “현재중심”의 관점과 관련이 있다(Blatt & Quinlan, 1967). 연구참여자들은 과거에 비슷한 일들을 처리할 때 마감시간에 쫓기거나 초과했다는 것을 앞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 즉 “계획된 오류(planning fallacy)”(Kahneman & Tversky, 1979)를 반복하며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다.

#### 다. 미래 - 미루기 : 내일을 위해 오늘을 미루기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헤는 맘으로 없는 길 가려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낮선 길 가려 하네  
아름다운 꿈꾸며 사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가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린 알고 있네 우린 알고 있네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이것은 대안학교인 간디학교의 교가이다. 학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배우는 시간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교가의 가사대로라면 ‘배운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 이므로 학생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꿈꾸는 시간’ 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별이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분명했던 꿈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막연해졌을 뿐만 아니라,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에 가서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선택할 수 있으니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말을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에게 들어왔다고 했다.

어렸을 때는 꿈이 분명한 편이었어요. 제가 그... 생각한 그 역량만큼 도달하지 못한 이유도 있고, 현실과의 괴리감도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 스무 살이 되면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싶어졌거든요? 그냥... 아, 스무 살에 내가 좋은 위치에 올라서 다시 나에 대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꿈은 진짜 막연해요.

그니까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된다. 공부를 잘 하면 좋은 대학에 가면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들은 말이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더 살기 좋은 나라라고 칭하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 그런게 없는 거 같아요. 한 가지 길 밖에 더 이상의 그런... 그게 솔직히 제일 편한 길이니깐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데,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이 살 길이다. 라는 거를... 니

**가 하고 싶은 것, 니가 다 해봐라! 해보고 니가 그 때 하고 싶은 걸 선택해라.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대학에 가서 그 때 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된다. 그 흐름 자체가 저는 굉장히 모순적이다. 라고 생각해요. (별이의 이야기)**

연구참여자들은 평균적으로 6시 30분에 기상하고 7시 30분에 등교하여 8시에 영어듣기를 하거나 아침자습을 하고 8시 30분에 1교시 수업을 시작해서 6시 이전에 정규수업을 마치고 석식을 먹고 난 후 보통 저녁 7시부터 야간자습을 했다. 1, 2 학년은 9시까지, 3학년은 10시까지 자습을 하는데 희망하는 학생은 11시까지 학교에 남아서 자습을 할 수 있었다. 평균 귀가 시간은 10시정도이고, 일주일에 2번 정도 학원에 가는 날은 11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했다. 학교 수행평가과제도 있고, 학원 과제도 있지만 그래도 1시 전에는 자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20년 전 한국교육개발원(1992a)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 고등학생들은 평균 수면시간 6시간, 생활시간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 가운데 거의 12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고 하였다. 나머지 4시간은 학원, 과외, 독서실 등에서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연구 참여자들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그 때와 비교하여 별로 달라진 것은 없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것 또한 20년 전과 동일하였다.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이렇게 거의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에 따라 자신을 맞추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려서 스스로 커리큘럼을 짜고 시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거나 잘 할 자신이 없다고 대답을 하였다.

**연구자: 지금은 학교의 커리큘럼에 이끌려서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는 환경인데 만약 자기가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도 내가 짤 수 있고 스스로 시간계획도 자율적으로 짤 수 있**

**다면 어떨까?**

**겨울:**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강:** 잘 하는 아이들은... 그리고 짜여진 수업도 솔직히 저는 혼자 하라고 하면 잘 할 자신이 없거든요. 커리큘럼도 다 저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혼자서는 저는 안될 것 같아요.

**바다:** 잘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딱히 수업방식에서 이의를 가지고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강이 말대로 자신한테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일단 저희를 위해서 만들어진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달:** 혼자하면 힘들어요.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이 틀립니다. 진짜 사실적으로 자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꽉 잡혀 있던 게 몸에 익숙해서 그렇겠지만... (여학생 포커스그룹 인터뷰)

달이는 지금까지 너무 꽉 잡혀 있었던 결과로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오히려 익숙하고, 바다나 강이는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커리큘럼이고 어릴 때부터 ‘해오던 대로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였다.

학교는 학생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다.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시간, 공간, 관계가 일상세계를 구성하고, 치열하지는 않지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속성 때문에 일상이 가지는 위력은 오히려 대단하다(조용환, 2000). 소박하지만 단단한 일상의 틀을 깨고 자신에게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미 길들여진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한다. 개개인이 가진 생각, 꿈, 감정, 실존적인 고민 등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방해할 수 있으니 일단 대학에 가서 생각을 하고 꿈도 다시 꾸고 실존적인 고민도 그 때 다시 하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들과 부모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학업미루기행동에 대한 연구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유지원 외, 2013)는 보고는 고등학교 때 학업미루기행동을 보인 학생들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특별한 계기나 개입이 없이는 개선되기가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즉 대학교에만 가면 모든 학업적인 어려움이 해결될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미루기행동을 지금처럼 반복함으로써 학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 그냥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또는 학교의 틀 안에서 ‘해오던 대로’ 하면서 그것이 자신들을 위한 일이라고 믿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열심히 할 것을 스스로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응원했다.

**이제 고 3이 되었으니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자!  
작심삼일 하지말고, 미루지 말고... 알겠지? 힘내렴! (달이가 달이에게)**

**하루하루 소중히 생각하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시간을 아껴쓰자.  
미루지 말자! 이제 곧 고 3이다. (겨울이가 겨울이에게)**

**잘 몰랐는데 이런게 내 스타일이다. 하지만 미룰 과목 미루지 말아야  
할 과목을 더 세밀하게 정해야겠다. (봄이가 봄이에게)**

**하늘아! 할 수 있어! 이번에는 등급을 1 등급 올려야지!  
해 온대로만 계속하자! (하늘이가 하늘이에게)**

**2학년이 되어 마음가짐도 새로워진만큼 안좋은 습관들을 버리기 위**

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이 마음가짐과 노력들 꼭 졸업할 때  
까지 가져가자! (가을이가 가을이에게)

여름아, 이제 고 2다. 제발 정신 차리고 미리미리 계획 제대로 세워  
서 공부하자. 미루지 말고 그 때 그 때 하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니도 할 수 있다. 파이팅! (여름이가 여름이에게)

앞으로의 내 인생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공부 미루지 말고 열심히  
해서 원하는 미래를 이루었으면... (바다가 바다에게)

## 2. 공간적 맥락에서의 의미

### 가. 학교 : 학교-내-존재(being-in-the-school)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집 이외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자  
외부세계로부터 다른 부류의 사람이 아닌 학생임을 구분하고 확인시켜주는  
공간이다. 즉, 학교는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공간임을 의미한다  
(김은수, 변순용, 2015). 공부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에 ‘인문계  
학생이라면 꼭 해야 하는 것’, ‘우리나라에 있는 이상 학생이 해야 할 일’,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학교는 ‘학생이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하는 곳’이고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연구참여자들이 생각하는 학교공간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대상이며  
다소 부당한 면이 있어도 근원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다보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다.

**애들이 진짜 규정도 막 엄격하고 그래서 다 싫다, 싫다 하는데, 저는 너무 괜찮거든요? 선생님들도 너무 막 혼내도 다 제가 잘못해서 혼난 거고, 선생님들... 물론 안괜찮은 분들도 있지만 괜찮으신 분이어서 저는 학교에 그렇게 막 불편한 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짜여진 수업도 솔직히 저는 혼자 하라고 하면 할 자신이 없거든요. 다 저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강이의 이야기)**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똑같은 교실, 똑같은 교사들, 급우들, 똑같이 문제를 풀고, 수업을 듣는, 매일의 생활패턴이 무미건조하리만큼 똑같다. 연구참여자들의 평균 수면시간이 하루 5-6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수업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졸고 있을 때가 많다고 했다.

**오전에 자는 게 이제 일상이 되니까는 그 쪼그마한 일상을 무시할 못하겠더라고요. 몸에 그게 뺨 배겨버려가지고... 학교 오전시간에 자는 게 문제가 있고... (달이의 이야기)**

**사실 영어듣기 때부터 자거든요? 그 때, 영어듣기 때라도 자면 1교시까지는 버티지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 잠이 와서 저도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데, 나도 모르게 자고 있고 그러면... 저도 놀래요. 가끔... 엇 내가 눈을 감고 있었네. 이런... (강이의 이야기)**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수면 상태나 혹은 가수면 상태로 수업을 듣는 것은

학생들의 부족한 수면시간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매일 다를 것 없이 반복되는 익숙한 학교의 환경 또한 원인이 될 것이다. 지금의 학교가 새로운 앎과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실존적 공간이 아니고 관심, 적성, 능력 어느 하나도 같지 않은 다수의 학생들을 제한된 시간, 공간, 관계 속에 수용하여 교육하는(조용환, 2000) 기능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냥 학교라는 그 자리에 있는 존재(being-in-the-school)(나병천, 2008)로 자리매김 되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렇게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공부는 공부의 기능만 있을 뿐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어주는 수행평가도 벼락치기로 과제 제출일에 반장이 '숙제 빨리 내라'고 할 때까지도 완성 못한 숙제를 하고 있다거나, 시험 공부도 벼락치기해야 할 과목들을 정해놓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급하게 공부를 했다.

**그냥 다 똑같은 건데? 숙제가 있으면 그날 아침에 뭐, 숙제 내기 10분 전, 1분 전까지... 다 그러고 있을 텐데? 학교가자마자 아무것도, 쌤들이, 답답이 뭐라 하든, 학교에 자습시간이 영어 듣긴데 무조건 해라해요. 그... 쌤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는 못듣고, 이거를 내야 되니까, 다 무시하고 내기 1분전, 반장이 내라내라 할 때까지 다 다다다... 해서 내죠. 아, 근데 다 똑같은 건데? (하늘이의 이야기)**

**저는 진짜 발등에 불이 딱, 떨어지면 인제 1분 1초가 부족한 거예요. 집중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겨울이의 이야기)**

별이도 또한 학교의 일과가 너무 빡빡해서 계획했던 공부를 다 하지 못한 날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학교 시험은 거의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치를 수밖에 없었으며 수능에 중요하지 않은 건 별이에게 중요하지 않

왔다고 했다.

**수능이 중요하다. 수능에서 안중요한 거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 고등학교 환경이... 시간이... 엄청 빡빡하고 수업이 진짜 많았거든요, 저희가? 진짜 쉬지 않고 돌아가요. 학교 시간 자체가 워...낙 빡빡해서 내가 오늘 배운 공부를 오늘 소화하지 못할 시간이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하던 공부를 계속하고 시험 한 일 주, 이 주? 그니까 시험주가 제일 피크구요, 그 벼락치기! (별이의 이야기)**

이렇듯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학업전략은 ‘도구적 순응’이다(조용환, 2009). 왜 공부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더라도 ‘하라는 대로’ 하다보면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것이므로 일단 따르고 보자는 것이다. 이것을 학교의 입장에서 바꾸어 말하면 학교는 학생들의 삶을 통제하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의 모든 요소에 학교가 개입하여 학교가 필요로 하는 ‘모범적인’ 학생을 학교-내-존재 (being-in-the-school)로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 **나. 학교: 학교-내-차별적존재(differential-being-in-the-school)**

학교에서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도구적 순응에 더 강한 면이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이미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혹은 자발적으로 선행학습을 앞당겨서 하고 진학을 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 비해 성적이 좋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성적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차별이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학교는 또한 성적에 따라서 성적이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에게만 조용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제공을 하는 등의 학교의 자원을 불평등하게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업이 성적 상위집단의 수준에 맞춰 진행되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뒤떨어지는 하위집단은 따라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조용환, 1994).

**그니까 학교체제가 공부 잘하는 애들의 입장을 좀 더... 학교 입장에서 보면 더 잘해 주려고 하고, 상도 다 주고... 상도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을 좀 더 많이 주고... 그니까 도서실도... 저희도 밤 늦게까지 하고 싶은 애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늦게까지 학교에서 있으면 공부가 되니까... 근데도 저희는 일단 보내고 개네들은 더 공부를 잘하는데 더 공부를 시켜주고 이러니까... 약간 그런... 시기? 도 있고... (하늘이의 이야기)**

그리고,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성적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공부 잘하는 선배가 후배에게 시험정보를 알려준다거나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려를 한다고 하였다.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보면 또 약간 공부 잘하는 선배들 다리 놔주고...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선배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런 동아리도 있고 그러니까 선배들이 또 '시험 이렇게 나온다.' '저 쌤 성격은 이렇다.' '여기서 나온다.' '내가 풀어봤는데 문제는 이게 좋다.' '3학년이 되면 뭐 이렇게 해라.' 약간 이렇게... 개네들은 아무래도 공부를 더 잘하는데 더 챙겨주고... 빈익빈 부익부... (바다의 이야기)**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다른 세계 사람들’, ‘신기한 존재’, ‘우월적 존재’, ‘공부도 잘하지만 놀기도 잘 놀고 뭐든 잘 하는 존재’, ‘스트레스도 덜 받는 존재’, ‘자기가 할 일을 미루지도 않고 시간도 효율적으로 쓰는 존재’ 등과 같이 자신들과 다른 차별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니까 제가 볼 때는 개네들은 진짜 그냥 최소 중학교 때부터 그냥 습관으로... 진짜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상위 클래스 애들만 보면 개네들은 딱 쉬는 시간밖에 안자고 그냥 쉬는 시간, 자습시간에도 안자요. 깨서 공부하고... 개네들을 보면 그냥 아예 습관인 것 같아요. 지가 오늘 해야 될 계획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 다른 거를 넘어서서 신기해요. 어떻게 애가 잠을 안잘 수가 있지? 근데, 요새는 공부를 잘하는 애가 다 잘해요. 개네들은 이미 머리가 있고 또 계속 하니까는... 똑같은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개네들을 보면 지금 저희 반에 전교 1등하는 애도요, 멜론 1위부터 100번까지 모르는 노래가 없어요. (하늘이의 이야기)

다른 세계 사람들 같지 않나? 나만 그런가? 개네들은 스트레스를 저희들보다 덜 받는 것 같아요. (바다의 이야기)

연구참여자들은 ‘우리’와 ‘개네들’을 다른 존재로 규정짓고 있었다. 즉,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개네들’은 우리와 다른 ‘그런 행동’을 하면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우월하고 차별적인 존재인 것이다.

세상에 고정불변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는 없으며, 교육적 존재론에서 존재는 ‘무엇이기(being)’가 아닌 ‘무엇 되기(becoming)’이다(조용환,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becoming’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고양시키기 보다는 ‘differential being-차별적 존재’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함

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학생들에게 느끼게 한 것으로 보인다.

공간은 시간과 함께 존재의 핵심 조건이요 속성이다(조용환, 2009).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는 학생들의 매일의 일상이 담겨있는 핵심적인 공간이며 또한 교사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교육적 상호작용이란 결국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노력의 과정이므로(조용환, 2009), 학생들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교육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혼자만 나아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나아지게(becoming better together)’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는 학생들이 ‘나’와는 차별적으로 다른 ‘너’에 대한 고정적이고 이분법적인 인식의 틀을 깨고 진정한 교육적 경쟁을 통해 아무도 지는 사람이 없는 win-win의 메커니즘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 3. 관계적 맥락에서의 의미

#### 가. 교사 : 정말 선생님, 아닌 선생님

교육은 학습자의 학습만으로도 교수자의 가르침만으로도 완결될 수 없는 교수와 학습의 상호보완적 관계로 이루어진다(조용환, 1997).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사는 학생의 지평을 열어주고 넓혀주는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타자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과목에 따라서 공부에 대한 흥미의 유무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좋으면 공부하기 싫은 과목도 공부하게 된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이 말하는 ‘좋은 선생님’이란 학생들을 존중해 주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의지를 불들어주고, 진학문제에 대한 상담을 잘 해주는 선생님이었다. 학생들은 ‘좋은 선생님’이란 의미로 ‘정말 선생님’, ‘진짜 선생님’ 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었다.

**엄청 좋은 선생님들도 계시죠. 정말 선생님이시고, 진짜 선생님이시고, 정말 저희에게 잘해주시고, 의지도 불들어 주시고 그런 선생님도 많은데... 또 맘에 안드는 선생님도 계시고... 과목마다 다른 것 같아요. (바다의 이야기)**

**솔직하게 진학문제를 놓고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죠.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나와 같은 나이의 딸을 두고 계셔서 또 다른 아버지의 느낌도 받아요. (하늘이의 이야기)**

그런데, 학생들은 정말 선생님, 진짜 선생님도 있지만 간혹 학생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닌 선생님’도 있다고 했다.

**과목마다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런 수업방식과 진...짜 간혹 가다가 진...짜 이런... 저희 학교에 특히 그런 선생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닌 것 있죠! 여자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너무 하시니까... 저는 그 분들을 선생님이로 안받아들여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심하거든요! 그런 거는 물론이고... 진짜 아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선생님은 어떤 생각으로 하시는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겨울이의 이야기)**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지식만 전달받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

다. 교사의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교사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 교사로서의 직업에 대한 소명감, 그리고 직업윤리를 포함하는 도덕적 윤리의식 등과 같은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받기를 학생들은 기대한다. 그런데, 간혹 만날 수 있는 ‘아닌 선생님’으로 인하여 공부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숙제도 안하고 미루는가 하면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학생도 있었다.

**사람 대하는 거를 잘 모르시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은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라도 엄청나게 상대한테 상처를 입힌단 말예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을 상대할 때,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니까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다 알고 있지만 제가 그렇게 상대해주기 싫거든요! 그러가지고, 어... 이제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저는 더 그냥... 더 맘을 단죠. 그런 선생님 과목은 숙제도 안하고 미뤄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면 저는 안좋은 과목이라도 하죠. (봄이의 이야기)**

학생들이 공부에 관심을 가지거나 또는 반대로 관심이 멀어지거나, 공부를 잘하게 되거나 또는 잘 못하게 되는 계기들 중에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포함 된다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적인 맥락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생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면서 교사와 함께 끊임없이 학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해나간다. 그 가운데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협상하면서 학교의 정해진 과정들을 완수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서 만나게 되는 선생님이 정말 선생님인지, 아닌 선생님인지에 따라 그들의 학습여정이 길고 지루한 여정이 될 수도 있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은 인내와 고통을 수반하는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현재의 고통이 장래의 행복의 싹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은 함께

‘잘 사는 삶’을 모색하고 추구하며 가르침과 배움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교육적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조용환, 1995).

## 나. 부모 : 그냥 믿어주는 존재

우리나라에서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는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며 학생들은 그런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려고 애를 쓴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를 신뢰하는 이유에 대하여 김의철과 박영신(2004)은 자녀의 ‘성실함’, ‘정직함’, ‘부모에게 순종함’, ‘학업에 충실’, ‘자녀에 대한 기대’ 등으로 보고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님에 대하여 ‘그냥 믿어주시고’, ‘터치를 하지 않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되 간섭은 절대 하지 않으시고’,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고 표현했다.

**일단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뭘 하든지 잘 터치를 안하세요. 왜냐면 저는 그게 정말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저는 솔직히 제 성격이요, 그렇게 막 쪼은다고 해서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냥 믿어주시죠. 저는 솔직히 수학문제를 한 10시간 풀라고 하면 풀 수 있어요. 제가 재밌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재밌는 이유는 일단 저희 부모님의 강제성이 없었어요. 니가 하고 싶으면 하되, 부모님이 환경은 확실히 만들어 준다! 이런 것들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께 진짜 감사하고 저도 나중에 애 낳으면 저희 부모님처럼 환경은 열어주고 저는 그러고 싶어요. (봄이의 이야기)**

**그냥 믿어주신다고 해야 하나? 믿어주시는 거죠. 제가 또 그냥 공부...  
안하고 왔는데 공부하고 왔다고 이렇게 좀 속이는 편인데도...**

**(가을이의 이야기)**

**엄마가 알아요. 엄마가 알아가지고 옛날에는 “니, 진짜 공부 안하나?”  
약간 이랬는데, 제가 점점... 엄마도 뭔가 어디서부터 엄마가 느낀 건  
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잘 아시나 봐요. (달이의 이야기)**

그러나, 자녀가 어린 아동일 때 부모가 아동의 삶에 깊이 관여하거나 과잉보호를 하거나 또 자녀에게 지나칠 정도의 무한한 자유와 자율성을 줄 때 미루기행동이 발달할 수 있다고 보고한 임성문(2006)의 연구결과처럼 여름이의 경우도 중학생 때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학업미루기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는 중학교 때와는 달리 여름이의 자율에 부모님이 다 맡기는 형태의 양육태도로 인해 오히려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했다.

**중학교 때는 간섭이 진짜 심했어요. 중학교 때는 간섭을 많이 받다보니  
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때부터 미뤄왔는데 고등학교 때는  
또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는 막 신경 써 줘서 공부해서 그냥 성적이 나온 거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내 혼자 하는 것도 알아야 하니까 그냥 요즘에는  
별로... 혼자 공부해라... 제가 얼마큼 했고 뭐 얼마큼 하고 그런 것도  
모르세요. (여름이의 이야기)**

이처럼 비교적 어린 때 부모님의 간섭으로 인한 학습의 부적응적인 양상으로 학업미루기행동을 하게 되었으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자마자 부여받은

지나친 자유로 인한 통제력의 상실로 오히려 더 미루기행동이 심해진 여름  
이의 경우도 있었지만 연구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부모님과 관계에 있어  
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어주시는 부모님 때문에  
그나마 벼락치기라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연구자: 부모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니가 공부를 안하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룰 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네?**

**봄: 그냥 믿어주시는 거죠. 저는 그것 때문에 좀 그래도 안하는 공부  
하는 편이고, 벼락치기라도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지금 부모님  
이 아니었으면 공부를 아예 안했을 거예요.**

**연구자: 가을이는 어때?**

**가을: 저는 성적을 받아오면 다음에 니가 이만큼 이제 놀만큼 놀고  
했으니까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응원을 해 주시죠. 그러면 그  
때마다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요.  
이제 또 분위기 휩쓸려서 또 안하지만...**

김동일과 다른 연구자들(2013)에 의하면 청소년의 학업미루기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맥락변인으로 중요한 타자로서 부모, 교사, 친구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세 변인 중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지속적으로 학업미루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부모의 양육태도가 권  
위적일 때 청소년의 학업미루기행동이 높고 특히 아버지의 권위적인 양육  
태도는 청소년의 학업미루기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어머니의 권  
위적인 양육태도는 자아개념을 매개로 하여 학업미루기행동과 관련이 있다  
는 연구결과도 있다(Pyckyl, Coplan, & Reid, 2002).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님의 권위적인 양육태도 때문에  
학업미루기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모님이 ‘그냥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벼락치기라도 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부모님들은 부모로서의 권위의식으로 자녀를 간섭하기 보다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고, 자녀를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자녀를 ‘그냥’ 믿어주는 존재였다.

연구참여자들의 학업미루기행동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뢰와 지지가 벼락치기라도 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동기를 높이며 이것으로 인해 학업미루기행동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 친구 : 나를 일으키는 존재

학업미루기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다른 유혹으로부터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호하는 것은 미루기행동을 보이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Schouwenburg, 1995). 특히 학교에서 이들이 공부에 집중하는 것을 힘들게 하는 유혹들 중에 가장 강력한 유혹은 ‘친구’일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일상에서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관계들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함께 있고, 공부뿐만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모든 면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존재가 친구이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도 아무리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오랜만에 공부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딱 집중을 하려던 찰나에도 친구가 놀자고 하면 의자에서 바로 일어나게 된다고 했다. 무의식이 의식을 선행하고, 행동이 의지를 앞서는 것을 겨울이는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친구를 좋아해서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라가지고 이게 공부를 만약 하고 있더라도 친구가 말을 걸거나 아니면 놀자! 이러면 바로 앓! 그 래! 이래 가지고 친구가 저도 중요하다고 느끼... 이게 공부가 중요하**

다고 마음속으로 느끼면서도 친구가 막상 오면... 몸이 먼저 반응해가지고 친구랑 같이 놀고...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겨울이의 이야기)

저는 이러면 안되는 걸 알고, 심각... 어떻게 될지도 알고, 심각한 것도 알고 근데... 그냥 한 마디면(나와서 놀자는 한 마디면)... 저는 바로 넘어가요. (여름이의 이야기)

연구참여자들은 공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친구와 어울리게 되는 것을 ‘분위기에 휩쓸린다’고 표현하였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사귀게 되면 덩달아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 ‘노는 애들(공부를 안하는 친구들)’과 사귀게 되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놀게 된다고 하였다.

공부에 있어서는 분위기에 진짜 잘 휩쓸리고 해서 중학교 때도 2학년 때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랑 같이 다니면서 그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옆에서 저도 공부좀 하고, 하는데 이제 3학년 때는 막 노는 애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그냥 놀고... 완전! 독서실 같은데, 도서관 이런데 가끔씩 간단 말예요. 근데, 진짜 아예 안가고 놀러만 다니고... 또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그... 친구들,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학교에 이렇게 있으면 같이 공부하러가고 이런데, 또 안하는 애들이랑 있으면 그냥... 그 때 그 상황에서는 공부생각을 진짜 1도 안하거든요. 공부를 생각도 안한단 말예요.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과제도, 수행평가 이런거... 몇 번 하다가 또 애들이 막 안하다보니까, 어, 애들도 안하네! 나도 안해야지! 이런 식으로 주변에 친구나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가을이의 이야기)

연구참여자들은 공부가 중요하고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한마디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휩쓸리는 이유가 ‘의지의 부족’에 있다고 하였다.

**학교에서는 말을 걸어오는 친구들! 그리고 그 분위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잘 휩쓸리고...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말을 걸어오면 당연히 막 이끌리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겨울이의 이야기)**

**우리 반 1등을 보면 진짜 자기 의지가 진짜 강해요. 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건 아닌데...(웃음) 노력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노력하면 1등이거든요? 그리고 분위기에도 안 휩싸여요. 개는 절대 꼼짝도 안하고 지 할 것 하거든요. 그게 나는 개가 부럽기도 하고,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여름이의 이야기)**

**제가 의지가 좀 약한 편이라서... 분위기에 휩쓸리고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안하거든요? (가을이의 이야기)**

의지는 목표로 설정한 일이나 과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이다(박도영, 2000).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게 하는 것이 동기라면, 하겠다고 결심을 한 일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유혹이나 대안적 행위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처음의 결심을 유지하게 하는 동력이 의지이다(서은희, 박승호, 2007).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친구는 공부에 대한 의지를 꺾는 피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유혹이었다.

## Ⅵ.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본 연구는 학업미루기행동에 대한 고정적인 관점, 즉 학업미루기행동을 문제로 보고 답을 제시하려는 관점이 아니라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이야기를 그들이 처한 시간적, 공간적, 관계적 맥락 속에서 분절시키지 않고 생생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함께 협력함으로써 학업미루기행동에 대한 경험의 퍼즐들을 시간적, 공간적, 관계적 맥락 속에서 조합하고 그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인 Cladinin & Connelly(2000)의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연구자는 남학생 3명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여학생 5명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그리고 한 명의 개인면담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었고 또한 그 경험의 의미를 시간적, 공간적, 관계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이야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학업미루기행동에 대한 경험의 의미를 시간적, 공간적, 관계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간적 맥락에서의 의미’는 학습이란 과거의 학습이 현재에 축적된 것이며, 현재의 학습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연구 참여자들의 학업미루기행동은 과거 초·중학교 시절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는 학업발달형성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동기, 기술 등에 대한 인식과 적용 그리고 올바른 학습습관을 기르지 못했기에 미루기가 하나의 학습습관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미루기습관은 고등학교 이전에는 노력하면 극복

할 수 있는 담장이었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계속된 미루기행동은 학습시간의 부족, 학습량의 증가, 그리고 어려워진 난이도로 인하여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견고해진 미루기습관은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의 생각과 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하지만 몇몇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서 학업미루기행동은 자신만의 방법으로써, 미루기를 계획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과에도 만족을 하는 등 학업미루기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학업미루기행동의 유형에 관계없이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내일을 위해 오늘을 미루고 대학입시라는 정해진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었다.

‘공간적 맥락에서의 의미’는 학생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더 편하고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렇듯 학교가 하라는 대로 하는 ‘도구적 순응’에 길들여진 학생들은 매일 익숙한 공간에서 매일 비슷한 활동을 하며 학교가 요구하는 모범적인 ‘학교-내-존재’로 양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의 미루기행동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습활동의 익숙함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즉 늘 똑같은 패턴의 의미 없는 학습과제를 미리 정성껏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학교는 성적상위권 학생들을 ‘차별적-학교-내-존재’로 학교의 자원들과 수업 그리고 상위권학생들끼리의 교류를 지원하는 등의 차별적 대우를 함으로써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들을 배려했고 이런 학생들을 가리켜 연구참여자들은 미루기행동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나와는 다른 ‘차별적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관계적 맥락에서의 의미’는 교사, 부모, 친구의 관계에서 학업미루기행동을 해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선생님을 ‘정말 선생님’과 ‘아닌 선생님’으로 구분하고, 어떤 선생님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따라 학습의 동기

와 흥미가 달라졌다. 연구참여자와 그들의 부모사이에 형성된 신뢰는 연구참여자들이 공부를 하는 계기 또는 동기가 되었지만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친구는 참여자들의 학습의지를 꺾는 불가항력적인 유혹이었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고등학생들의 학업미루기행동 경험과 그 의미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생들의 학업미루기행동은 다각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학업미루기행동은 개인의 고정적인 기질만으로 설명할 수 있거나 동기의 부족이나 또는 환경적 요인만으로 미루기행동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일회적이고 고정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학업미루기행동을 일으키는 요인과 과정을 시간적, 공간적, 관계적 맥락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예방적 개입과 치료적 개입을 체계적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등학생들의 학업미루기행동 경험에 대하여 시간적, 공간적, 관계적 맥락에서 도출된 의미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시간적 맥락에서 고등학생들의 학업미루기행동 경험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공교육이 학령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할 학업발달에 대한 인식과 교육현장에서의 적용훈련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학업발달과 관련된 주요내용이 학업동기와 학업기술 습득이며(권영배, 2011), 중학생들이 획득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발달영역으로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과 학업성취 중심적인 효과학습을 배워야 함(Blocher, 2000)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의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학습습관은 시간의 축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년이 높아질수록 형성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떨어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학업미루기행동이 습관으로 고착화되기 전에 학업발달 단계별로 필요한 예방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학업미루기행동을 하는 학생들은 성실성과 실천 가능한 계획성이 부족하

고 시간관리에 실패하며, 충동조절능력이 낮고 공부훈련이 부족하다는 Schouwenburg(1995)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가 본 연구에서도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학업미루기행동을 수정하기를 희망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고, 막연히 미루기행동의 책임소재가 자신의 의지의 박약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학업미루기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개입은 먼저, 무조건 학업미루기행동이 문제라는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상황에 맞는 행동대처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루기행동이 나쁘다는 인식 때문에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끝까지 그 일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오히려 더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인식의 개선과 함께 중요한 것은 행동의 개선을 위한 교육적 개입이다. 행동의 개선은 더 높은 프로세스가 더 낮은 프로세스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Baumeister et al., 1994). 그러므로 고등학생들의 학업미루기행동은 목표설정, 계획과 일정조절 기술, 시간통제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시간관리능력(Lay & Schouwenburg, 1993)과 단기유혹에 대한 통제력, 의도와 행동의 불일치를 감소시키는 자기조절능력(Schouwenburg, 1995) 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업미루기행동을 하는 학생들 스스로 통찰할 수 있는 반성적 글쓰기가 미루기행동에 대한 조절 및 개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반성적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미루기행동의 패턴과 원인에 대해 인지하게 되고 미루기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업미루기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고 행동을 바꾸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매우 어렵고 유쾌하지 않은 경험일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무엇인가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경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Schouwenburg et al.,

2015).

둘째, 공간적 맥락에서 살펴볼 논의점은 학업미루기행동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적인 교육의 한계점과 맥을 같이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내어주는 의미 없는 과제와 수행평가를 학생들은 매번 벼락치기를 하면서 수행하고, 성적을 서열화하는 본질에서 어긋나는 시험 또한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저하시켜 공부를 미루게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이 속한 수학 교과와 교실구조를 숙달목표구조, 즉 학습목표를 높은 학업 성취 수준추구와 학습자의 능력에 따른 서열화가 아닌 자신의 숙달과 발전으로 설정하고 학습하는 구조로 지각한 학습자들일수록 학업미루기행동을 적게 나타낼 수 있다는 이선영 등(2016)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교실을 숙달목표구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학습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평가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이선영 외, 2016). 즉 창의적이고 흥미 있고, 의미 있는 학업과제와 수행평가 그리고 시험체계를 개발하고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의 미루는 행동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학교체제에 길들여진 ‘학교-내-존재’가 아닌 주체적이고 역동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배움이란 일상의 모든 일을 상황과 처지에 따라 적절하게 행함으로 못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삶의 기술이다(송수진, 2016).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대학입시에 성공하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기능적인 교육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삶과 얹이 분리되고 왜곡된 장소화된 공간이 되었다. 학생들에게 있어 학교는 중요한 타자들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체험의 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조용환(2009)의 연구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은 분리, 차별, 서열, 경쟁, 소외에 젖어 있다는 것이 본 연구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이 성적 상위권자들은 학교에서 차

별적으로 배려와 지원을 해주는 집단이며, 연구참여자들보다 모든 면에서 차별적으로 다른 존재(학교-내-차별적 존재)이므로 학업을 이루는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지각했다. 즉 다수의 학생들은 학교체제는 성적에 따라 이원화되며, 자신이 속하지 않은 소수의 성적상위집단에 대해서 차별된 인식을 하고 있었다. 현실적으로도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수의 성적상위권집단은 학교의 배려와 지원으로 더 앞서나가는 집단이 되고, 그렇지 않은 다수의 집단은 계속 뒤쳐지게 되는데, 이러한 이원화된 학교체제는 아무도 지지 않는 win-win의 메커니즘이 아닌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적 현상을 답습하고 있는 듯하다. 즉 학생들의 능력을 차별화하여 기회와 지위를 배분하기 때문에 학교가 소수의 성공자에게는 더 유리한 공간이 되는 것(조용환, 1994)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통탄만 하고 있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에서 학교를 앎과 삶이 제각각이 아닌 통합된 공간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성격의 빈 공간으로서의 학교가 아니라 구체적인 학생들의 삶이 퇴적되어 있어 그들의 삶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삶의 방식에 대한 다양한 개인적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실존적 공간(나병천, 2008)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셋째, 관계적 맥락에서 고등학생들의 학업미루기행동 경험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 논의점은 먼저, 학교에서 학업적인 면에서 학생들과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중요한 타자가 교사라고 볼 때, 교사가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고압적이거나 자질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면 학생들은 학업자체에 흥미를 잃거나 고의적으로 학업을 회피하고 심지어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차단하기도 했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학습자의 학업적 효능감과 흥미를 높이고 그 결과 학생들의 학업미루기행동이 감소한다(이선영 외, 2016)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학업을 거부하거나 학업미루기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미루기행동의 원인으로 본 연구에서 새롭게 드러난 미루기행동의 원인이다.

다음으로 학업미루기행동과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조건 없는 무한한 신뢰와 정서적 지지는 학생들의 의지를 강하게 하였다. 이는 부모의 정서적인 지지가 학습자의 동기를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학업미루기행동도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선영 등(2016)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의 신뢰와 지지를 긍정적으로 자각하고 벼락치기라도 해서 부모님의 기대에 보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는 다르게 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수동적인 학업태도가 고착화된 학생에게 학년이 높아짐과 동시에 갑자기 학업적인 면에서 지나친 자유와 자율성을 부과하는 것은 자녀의 학업에 긍정적이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통제적인 태도는 자녀의 수동적인 학업태도를 유도하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성향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학업미루기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Bong, Hwang, Noh, & Kim, 2014; Ferrari & Olivette, 1993, 1994)와,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거나 또는 자녀의 자율성에 맡기는 경우에도 미루기행동이 발달했다는 선행연구(임성문, 2006)의 결과와 맥락을 함께 한다.

마지막으로, 학업미루기행동과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또래관계는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환경적 방해 자극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아무리 친구가 공부를 방해하는 자극이라 할지라도 또 친구를 사귄 때 친구의 성적이 중요하며 성적차이가 나면 친구관계가 멀어지게 되고(조경진, 김은정, 2009), 학업성취가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문주희, 백지숙, 2012; 이윤주 외, 2013)고 할지라도, 고등학생들

은 행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친구들과의 관계를 꼽고 있다(오영수, 이재영, 2014). 그래서 연구참여자들은 어떠한 학습상황에 처해 있다하더라도 친구라는 자극이 오면 이성적으로는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하려고 하지만 이미 몸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백전백패의 반응이지만 행복한 반응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학업미루기행동에 대한 또래관계의 영향이 본 연구에서는 통제하기 힘든 강력한 유혹이며 미루기행동의 원인이 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관계적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 보다는 ‘다움’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다움’은 실존의 회복을 전제로 한다. 즉 교사는 교사답고, 학생은 학생답고, 부모는 부모답게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이행한 후에 ‘더불어’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면 교사, 학생, 부모는 배움의 과정에서 ‘더불어’ ‘함께’ 하는 동행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당부분 양적연구의 결과와 맥을 함께 했다. 이것은 여러 학자들이 학업미루기행동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관점으로 다각적인 연구를 실행하였고, 그 결과 밝혀진 미루기행동의 원인에 대한 여러 하위변인들의 그물망이 촘촘하여 미루기현상에 대한 넓은 범위의 설명력을 갖추었기 때문으로 추측되어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양적연구 방법으로는 알 수 없었던 학업미루기행동의 원인이 연구참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그것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고압적이고 비인격적인 태도가 미루기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과 그리고 친구가 가장 강력한 미루기행동을 유발하는 환경적 방해자극이 된다는 것,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학생들은 미루기행동이 아니고 미뤄지는 행동으로 자신의 학업미루기행동을 설명하며, 학생들의 학습속도와 무관하게 타이트하게 짜여 있는 학교의 일정 또한 학습을 미뤄지게 만드는 요인

이 된다는 것이다.

## 2.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학업미루기행동에 대하여 내러티브 탐구방법으로 그들의 생생한 경험이야기와 그것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적인 맥락에서의 의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학업미루기행동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험을 했거나 경험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각자의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업미루기행동 경험에 대해 자신들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지만 그들의 미루기행동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계획대로 완성하지 못한 공부 또한 그들 앞에 미뤄진 채 남아있다. 학업을 미루는 행동은 나쁜 것이고 제 때 제 때 미루지 않고 공부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학업미루기 행동을 보면 이러한 행동은 문제행동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봄이는 미루는 것은 자신의 계획에 의한 것이고, 미루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겨울이와 별이는 자신의 계획이 너무 빡빡해서 또는 학교 일정이 자신의 계획을 다 실행할 수 없을 정도로 타이트하게 돌아가서 미뤄지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미루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학업을 미루는 행동은 학생들이 ‘해야 할 일들’ 앞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행동일 지도 모르겠다. 숨고르기를 하면서 아이들은 해야 할 일을 지금할지, 나중에 할지 또는 포기할 것인지를 생각할 것이다. ‘시간이 금’이라는 생각과,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어른들에게 있어 이러한 아이들의 생각하고 숨

고르는 시간들을 참아낼 인내심은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른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아이들과 불화하며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시간리듬에 맞춰 따라오라고 말한다. 어쩌면 이 사회는 미루는 아이들을 양성하는 사회일지도 모르겠다. 어른들의 시간과 어른들이 제공한 공간과 어른들이 주체가 되는 관계의 틀 안에 딱 들어맞는 아이들을 그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며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어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학업미루기행동’은 노력하고 교정해서라도 공부하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어쩌면 학업미루기행동은 정작 학생들 본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부모나 선생님들이 더 많이 걱정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Mandel, 1997). 그러나 학업미루기행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이러한 행동을 극복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거나 또는 이러한 행동이 자신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학업미루기행동은 주위의 관심과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하는 복합적이고 복잡한 양상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후속연구에서 연구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업미루기행동에 대하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미루기행동과 학습습관의 형성시기에 대한 관점에서 고려해볼 때,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고등학생들의 학업미루기행동의 공간적 맥락의 의미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학교와 미루기행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수집방법을 통하여 가정과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학업미루기행동의 경험과 그 의미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양적연구방법을 통해 학업미루기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이 보고되었지만 그것의 이론적 합치가 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학업미루기행동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 방법 중에서 내러티브 방법으로 연구를 하였는데, 후속 연구는 다른 질적연구 방법으로 학업미루기행동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적연구로 밝히지 못한 여러 맥락 속에 숨겨져 있는 드러나지 않은 원인들을 발견하여 학업미루기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직적인 교육적 지침을 개발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연구를 마치며>

아이들의 인터뷰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읽고 또 읽어도 지루하지가 않았다.  
때로는 답을 주려고 안달이 났던 나의 오지랖과 오만도 사랑이었음을...

어른이라 그럴까?

나는 왜 자꾸 답을 주려고 하는지...

그냥 듣고, 보고, 느끼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면 되는데...

한번 씩 너희의 눈을 쳐다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

“헉... 선생님도 우리와 똑같구나! 나만 그런 건 아니네!”

안도의 눈빛? 동질의 눈빛? 장난이 이글이글 느껴지는 그 눈빛이 아직도  
선하다.

너희는 참 사랑스러웠다.

내가 준비가 덜 된 채 너희를 만나서 그게 너무 아쉽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못한 것, 조금 더 자주 만나지 못한 것, 인터뷰  
를 전사해보니 나는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했을까? 너희들의 말을 더 많이  
들었어야 했는데...

서술적질문지에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주기도 하고, 하트를 뽕뽕 적어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너희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 연구의 시작도 너희였고, 이 연구과정에도 너희는 나의 힘이었고, 이 연  
구의 마지막도 너희로 끝을 맺었어.

이렇게 말하고 싶구나.

“너희와 함께 한 모든 날이 좋았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오글거린다고 하면서도 좋아 할 너희들!

사랑한다. 애들아!

너희, 정말 이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글은 하나님과 공동작품입니다.

글이 막힐 때 마다 투정부리고 징징거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학생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셨잖아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생님이 될게요.

저, 앞으로도 징징거리고 투정부릴 거예요. 당당하게!

존경하는 교수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말씀 한 마디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선생님, 능력 있어요!”

저를 가슴 뛰게 했던 교수님의 이 말씀 한 마디 때문에 제가 미흡한 논문이지만 끝까지 붙잡고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묵묵히 저를 지지해 주셨던 교수님의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과 글과 행동이 일치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교수님처럼...

사랑하는 가족!

글 쓴다고 여기저기 책이며 논문이며 흩어놓고 지저분하게 해서 미안했어  
요.

혼자만 바쁜 척 해서 그것도 미안했어요.

시장도 안보고 식사준비도 대충 해서 미안했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뻔뻔하리만큼 당당해서 미안했어요.

나이 들어 공부하니 체력적으로도 심적으로 힘들다고 투정부려서 미안했어  
요.

그래서 미안하고, 그래도 미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 참고문헌

- 강은비 (2013). 성격요인과 학업지연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성실성과 신경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정임 (2013). 남녀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학업지연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현석 (2005). 합리주의적 교육과정 체제에서 배제된 내러티브 교육과정의 가능성과 교과목 개발의 방향 탐색. *교육과정연구*, 23(2), 83-115.
- \_\_\_\_\_ (2007). 교사의 실천적 지식으로서의 내러티브에 의한 수업비평의 지평과 가치탐색. *교육과정연구*, 25(2), 1-35.
- 강현석, 최윤경 (2009). 내러티브 개념의 다양성 탐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3(1), 23-45.
- 교육학사전 편찬위원회 (1981). *교육학 대사전*.
- 권영배 (2011). 초등학생의 학업발달을 위한 학급단위 학업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일, 김명찬, 남지은, 강은비, 오지원, 장정현 (2013). 부모양육태도와 고등학생의 학업미루기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 전략의 매개효과 모형. *아시아교육연구*, 14(2), 29-50.
- 김병극 (2012). 교사의 교육활동에서 내러티브 탐구 과정이 가지는 의미. *교육인류학연구*, 10(1), 37-62.
- 김성렬, 김종두 (2008). 초등학생의 긍정적 정서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교사-학생 관계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수지 (2013). **능동-수동 지연행동 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정서조절 양식의 조절효과**.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석사논문.
- 김영천 (2004). **(교과교육과 수업에서의) 질적연구**. 서울: 문음사.
- 김은수, 변순용 (2015). 교실공간의 인간학적·도덕교육적 의미 탐구. **윤리교육연구**, 36, 153-169.
- 김은지, 김정섭 (2015). 시간관리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업적 지연행동과 의지통제에 미치는 효과. **교사교육연구**, 54(2), 301-314.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부모의 인간관계를 통해 본 신뢰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10(2), 103-137.
- 김태균 (2008). **청소년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 시간, 학업 흥미의 중단적 매개효과 검증**.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정 (2010). **능동-수동 지연행동에 관련되는 심리적 특성 및 정서적 고통**.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병천 (2008). 지리교육 내용으로서의 학교공간의 의미탐색. **초등사회과교육**, 20(1), 19-35.
- 노영희 (2009). 유아의 내러티브에 대한 연구동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4(1), 303-330.
- 류소영 (2014). **빈곤한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목정연 (2012). **고등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자되기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문병상 (2011). 미래목표, 성취지향성과 자기조절학습의 인과적 관계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2(1), 45-67.
- 문주희, 백지숙(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

- 가 학업효능감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초기청소년과 중기청소년 비교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0(3), 39-50.
- 박귀선 (2009). **다문화교육의 개념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Focus Group Interview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도영 (2000). **학구적 지·정·의와 성취도와의 인과구조분석**.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동혁 (2006). 대학생 시간관리 행동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01-816.
- 박병기, 김지영, 박현아, 김영미 (2015). 교육 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의 적용: 최근 5년간 연구의 내용분석과 하나의 실제 연구. **교육심리연구**, 29(3), 383-408.
- 박세원 (2007). 교사의 교육 활동에서 내러티브 탐구 과정이 가지는 의미. **교육인류학연구**, 10(1), 37-62.
-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1999).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 5(1), 57-76.
- 보건복지부 (2009b).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http://www.khidi.or.kr/kps>에서 검색.
- 서덕희 (2007). '여유'의 교육적 의미: 홈스쿨링의 시간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교육과정연구**, 25(2), 63-90.
- \_\_\_\_\_ (2008). **홈스쿨링을 만나다**. 서울: 도서출판 민들레.
- 서미옥 (2014). 대학생의 학업지연 원인 탐색: 혼합연구. **교육학연구**, 52(1), 273-301.
- 서원주 (2010). 개인의미도법: 박물관 교육을 위한 질적연구조사방법. **박물관교육연구**, 4, 63-82.

- 서은희 (2007). 지연행동가들의 불안수준에 따른 자기조절학습의 차이. **교육심리연구**, 21(3), 613-626.
- 서은희, 김은경 (2012). 대학생의 지연행동 유형에 따른 몰입경험의 차이. **교육심리연구**, 26(2), 377-390.
- 서은희, 박승호 (2007). 의지통제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관계. **한국교육심리연구**, 21(2), 423-436.
- 송수진 (2016). 일상의 교육적 의미: 「격몽요결」을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38(2), 97-117.
- 신을진, 고진경 (2011). 능동-수동 지연행동과 자기조절학습전략과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2, 25-47.
- 염지숙 (1999). 내러티브 탐구를 통한 유아세계 이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의 전이경험 연구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2(3), 57-82.
- 염지숙 (2003). 교육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마. **교육인류학연구**, 6(1), 119-140.
- \_\_\_\_\_ (2009). 유아교육연구에서의 내러티브 탐구: 관계와 삼차원적 내러티브 탐구공간에 주목하기. **유아교육학논집**, 13(6), 235-253.
- 오선희, 강재태 (2011). 일반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모습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현상·해석학적 교육연구**, 8(1), 29-55.
- 오영수, 이재영 (2014). 중·고등학생의 행복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경제교육연구**, 21(2), 1-31.
- 유지원, 강명희, 김은희 (2013). 이러닝 강의를 수강하는 대학생들의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관계규명.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6(1), 81-95.
- 윤재호 (2011). 지연동기 척도 개발 및 지연동기와 심리적 부적응간 경

로 모형 연구. 카톨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영 (2015). 청소년기 학습자의 학업지연연구를 위한 제언: 학업지연연구의 이론적 수렴을 바탕으로. **교육문제연구**, 28(4), 109-140.
- 이선영, 김성인, 봉미미 (2016). 학업지연 행동의 기질적, 환경적, 동기적 선행요인 검증, **교육심리연구**, 30(3), 635-669.
- 이수민, 양난미 (2011).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23(3), 717-738.
- 이수정, 박찬국 (1999). **하이데거: 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원희 (2000). **고등학생의 시간관리와 학업성취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주, 문명현, 지연정 (2013). 공부에 대한 에세이에 나타난 여고생의 학습몰입과 학습동기. **아시아교육연구**, 14(4), 229-254.
- 이정민, 노지예 (2015). 고등학생들의 자기결정성동기, 메타인지, 학업지연 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 **청소년학연구**, 22(5), 345-366.
- 이정숙 (2005). 생활시간관리에 관한 고찰. **생활과학논집**, 10, 13-21.
- 이정표 (2012). 방법론으로서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 고찰. **초등교육학연구**, 19(2), 127-147.
- 이현주 (2012). 완벽주의와 학습지연전략의 관계에서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원교육**, 28(3), 91-112.
- 임성문 (2006). 대학생의 만성적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 부적응도식. **한국청소년연구**, 17(2), 185-211.
- 전선미, 박주희 (2014). 고등학생의 완벽주의가 학업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1(8),

589-612.

- 정금란 (2009). **초등학교 다운중후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양육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수경, 강현석 (2015). 내러티브 개념의 다양성 탐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3(1), 23-45.
- 조경진, 김은정(2009). 입시문화와 청소년기: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본 한국 청소년 또래관계에 대한 고찰. **교육인류학연구**, 12(2), 71-101.
- 조용환 (1993a). 청소년연구의 문화인류학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4(3): 5-17.
- \_\_\_\_\_ (1994). 고등학교 학생문화의 종합적 이해와 비판. **정신문화연구**, 17(4), 117-149.
- \_\_\_\_\_ (1995). 학교구성원의 삶과 문화: 교사와 학생, 그들은 행복한가? **교육학연구**, 33(4), 77-91.
- \_\_\_\_\_ (1997). **사회화와 교육: 부족사회 문화전승 과정의 교육학적 재검토**. 서울: 교육과학사.
- \_\_\_\_\_ (2000). '교실붕괴'의 교육인류학적 분석: 학교문화와 청소년문화의 갈등을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3(2), 43-66.
- \_\_\_\_\_ (2001). 문화와 교육의 갈등-상생 관계. **교육인류학연구**, 4(2): 1-27. 한국교육인류학회.
- \_\_\_\_\_ (2009). **고등학생의 학업생활과 문화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조인숙 (2014). **Bruner의 내러티브 이론에 기초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병하 (2014). 체대입시반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입시준비과정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4), 67-85.
- 주지선, 조한익 (2014). 또래상담자의 또래상담 교육과 활동 경험에 대한

- 연구- 포커스 그룹인터뷰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5(6), 2557-2579.
- 지연정, 김병주 (2015). 여고생의 입시준비와 학교생활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행정학연구**, 33(3), 29-53.
- 지연정, 김병주 (2016). 여고생의 하루. **동아인문학**, 35, 455-489.
- 진주은, 김은하 (2016). 고등학생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성향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7(2), 139-156.
- 추상엽, 임성문 (2007). 가족구조와 고등학생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 부모소득, 학업지원행동의 매개효과와 지연행동의 조절효과. **교육심리연구**, 21(3), 497-512.
- 추상엽, 임성문 (2008). 실패공포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9(4), 169-198.
- 한국교육개발원 (1992a). 「**한국교육의 종합이해와 미래구상(Ⅲ): 학생들의 삶과 문화편**」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영숙 (2011).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4), 277-299.
- 한영숙, 김선욱(2012). 완벽주의, 자기통제력,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4), 203-224.
- 함경애, 송부옥, 노진숙, 천성문 (2011). 남자 중학생을 위한 학업적 지연행동 극복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상담학연구**, 12(3), 861-879.
- 허효선, 임선영, 권석만 (2015). 완벽주의와 충동성이 학업적 착수지연 및 완수지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34(1), 147-171.
- 홍영숙 (2015).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이해.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3(1), 5-21.
- 황갑진 (2006). 교육현상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과 가정환경의 영향. 대

- 학서열과 입시교육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3(3), 69-92.
- 황명숙, 정은희 (2008).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불안에 대한 학업성취도의 영향에 관한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0(1), 115-125.
- Aiken, M. (1982). *A personality profile of the college student procrastinat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 Ames, C. (1992). Classrooms: Goals, structures,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 261-271.
- Baumeister, R. F., Heatherton, T. F., & Tice, D. M. (1994). *Losing control: How and Why people fail at self-regulation*.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Blatt, S. J. & Quinlan, P. (1967). Punctual and procrastinating students: A study of temporal paramete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69-174.
- Blocher, D. H. (2000). *Counseling: A developmental approach* (4th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Bloom, B. S. (1974). Time and Learning. *American Psychologist*, 29.
- Blunt, A. K., & Pychyl, T. A. (2000). Task aversiveness and procrastination: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ask aversiveness across stages of personal projec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8, 153-167.
- Bong, M., Hwang, A., Noh, A., & Kim, S. (2014). Perfectionism and motivation of adolescents in academic contex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6, 711-729.

- Brinthaupt, T. M., & Shin, C. M. (2001). The relationship of cramming to academic flow. *College Student Journal*, 35(3), 457-472.
- Bruner, J. S. (1990). *Acts of mean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6). *The Culture of Educa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 Bui, N. H. (2007). Effect of evaluation threat on procrastination behavior.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7, 197-209.
- Choi, J. N. & Moran, S. V. (2009). Why not procrastinat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active procrastination scal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9(2), 195-212.
- Chu, A. H. A., & Choi, J. N. (2005). Rethinking procrastination: Positive effects of “active” procrastination behavior on attitudes and performance. *The Journal of Psychology*, 145(3), 245-264.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1994). *Personal Experience methods*. In N. K. Denzin & Y.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1998). Studying Teacher’s Knowledge of Classrooms: Collaborative Research, Ethics, and the Negotiation of Narrative. *The Journal of Educational Thought*. 22(2A), 269-282.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소경희 외 역 (2007). *내러티브 탐구*. 교육과학사.
- Clariana, M., Gotzens, C., Badia, M. & Cladellas, R. (2012).

- Procrastination and cheating from secondary school to university. *Electronic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al Psychology*, 10, 737-754.
- Connelly, F. M., & Clandinin, D. J. (1990). Stories of Experience and Narrative Inquiry. *Educational Researcher*. 19(5): 2-14.
- Corkin, D. M., Yu, S. L., Wolters, C. A., & Wiesner, M. (2014). The role of the college classroom climate on academic procrastination.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 292-303.
- Deleuze, G. (2004). *Difference et Repetition*.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김상환 역). 차이와 반복. 서울: 한길사. (원전은 1968년도에 출판).
- Dewey, J.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 \_\_\_\_\_. (1920). *Reconstruction and Philosophy*. Boston: Beacon; reprint 1962.
- \_\_\_\_\_. (1933). *How we think*. Chicago: Henry Regnery.
- \_\_\_\_\_. (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New York: Collier Books.
- DeWitte, S., & Lens, W. (2000). Procrastinators lack a broad action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4, 121-140.
- Dewitte, S., & Schouwenburg, H. C. (2002). Procrastination, temptations, and incentives: the struggle between the present and the future in procrastination and the punctual.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6, 469-489.
- Else-Quest, N. M., Hyde, J. S., Goldsmith, H. H., & Van Hulle, C. A.

- (2006). Gender differences in temperament: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2(1), 33.
- Fee, R. L., & Tangney, J. P. (2000). Procrastination: A means of avoiding shame or guilt?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5, 167-184
- Ferrari, J. R. (1992). Procrastinators and perfect behavior: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self-presentation, self-awareness, and self-handicapping component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6, 75-84.
- Ferrari, J. R. (1994). Dysfunctional procrastination and its relationship with self-esteem, interpersonal dependency, and self defeating behavio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 673-679.
- Ferrari, J. R. (2001). Procrastination as self-regulation failure of performance: Effects of cognitive load, self awareness and time limits on "working best under pressur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5, 391-406.
- Ferrari, J. R., & Dovidio, J. F. (2000). Examining behavioral processes in decision: decisional procrastination and decision-making sty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4, 127-137.
- Ferrari, J. R., Johnson, J. L., & McCown, W. G. (1995). *Procrastination and task avoidance: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New York: Plenum.
- Ferrari, J. R., & Olivette, M. J. (1993). Perceptions of parental control and the development of indecision among late adolescent females. *adolescence*, 28, 963-970.

- Ferrari, J. R., & Olivette, M. J. (1994). Parental authority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female dysfunctional procrastin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8*, 87-100.
- Ferrari, J. R., & Pychyl, T. A. (2000b). The scientific study of procrastination: Where have we been and where are we going?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5*, vii-viii.
- Flett, G. L., Blankstein, K. R. & Martin, T. R. (1995). Procrastination, negative self-judgements, and stress in depression and anxiety: A review and preliminary model. In J. R. Ferrari, J. L. Johnson, & W. G. McCown (Eds.), *Procrastination and task avoidance: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pp. 137-167). New York: Plenum.
- Gadamer, H. G. (2012). *Wahrheit und Methode: Grundzuge einer philosophischen Hermeneutik*. (임흥배 역). 진리와 방법: 철학적 해석학의 기본 특징들 2. 서울: 문학동네. (원전은 1900년도에 출판).
- Gottfried, A. E. (1985). Academic intrinsic motivation in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7*(6), 631-645.
- Gottfried, A. E. (1990). Academic intrinsic motivation in you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3), 525-538.
- Gove, P. B. (Ed.). (1976).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unabridged*. Springfield, MA: Merriam.
- Grunschel, C., Patrzek, J., & Fries, S. (2013). Exploring reasons and

- consequence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an interview study.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28*, 841-861.
- Hong, J. C., Hwang, M. Y., Kuo, Y. C., & Hsu, W. Y. (2015). Parental monitoring and helicopter parenting relevant to vocational student's procrastin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 139-146.
- Kahneman, D. & Tversky, A. (1979). Intuitive prediction: Biases and corrective procedures. *TIMS Studies in Management Science, 12*, 313-327.
- Kim, K. R., & Seo, E. H.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procrastina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A meta-analy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2*, 26-33.
- Klingsieck, K. B. (2013). Procrastinations: when good things don't come to those who wait. *European Psychologist, 18*, 24-34.
- Kuhl, J. (1981). Motivational and functional helplessness: the moderating effect of state versus acti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1), 155-170.
- Lay, C. H. (1995). Trait procrastination, agitation, dejection, and self-discrepancy. In J. R. Ferrari, J. L. Johnson, & W. G. McCown (Eds.), *Procrastination and task avoidance* (pp. 97-112). New York: Plenum.
- Lay, C. H. (1988). The relation of procrastination and optimism to judgements of time to complete an essay and anticipation of setback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 201-214.
- Lay, C. H., & Burns, P. (1991). Intentions and behavior in studying for

- an examination: The role of trait procrastination and its interaction with optimism.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6, 605-617.
- Lay, C. H., & Schouwenburg, H. C. (1993). Trait procrastination, time management, and academic behavior.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8, 647-662.
- Lefebvre, H. (1968).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역 (2005). 서울: 도서출판 기과랑.
- Lepper, M. R., Corpus, J. H., & Iyengar, S. S. (2005).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al orientations in the classroom: Age differences and academic correlat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 184-196.
- Logue, W. (1988). Research on self-control: An intergrating framework. *Behavioral and Brain Science*, 11, 665-679.
- Mandel, H. P. (1997). *Conduct disorder and underachievement: Risk factors, assessment, treatment, and prevention*. New York: Wiley.
- McCown, W., Petzel, t., & Rupert, P. (1987). An experimental study of some hypothesized behaviors and personality variables of college student procrastinato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 781-786.
- Middleton, M. J. & Midgley, C. (2002). Beyond motivation: middle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press for understanding in math.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7, 373-391.
- Milgram, N. A. (1991). Procrastination. In R. Dulbecco (Ed.),

- Encyclopedia of human biology*(Vol. 6, pp. 149–155). New York: Academic Press.
- Milgram, N. A., Mey-Tal, G., & Levison, Y. (1998). Procrastination, generalized or specific, in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5*, 297–316.
- Moon, S. M. & Illingworth, A. J. (2005). Exploring the dynamic nature of procrastination.: A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 297–309.
- Orella-Damacela, L. E., Tindale, R. S., & Suarez-Balcazr, Y. (2000). Decisional and behavioral procrastination: How they relate to self-discrepancies. *Journal of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 Padgatt, D. 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Sage Publications, Inc. 유태균 역. (2001). 나남출판사.
- Polikinghorne, D. (1988). *Narrative Knowing and the human scienc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강현석외 옮김 (2009). 내러티브. 인문과학을 만나다-인문과학연구의 새지평. 서울: 학지사.
- Procter, P. (Ed.). (1995). *Cambridge international dictionary of English*.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ychyl, T. A., Coplan, R. J, & Reid, P. A. (2002). Parenting and procrastination: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 between procrastination, parenting style and self-worth in early adolesc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2), 271–285.

- Pychyl, T. A., Morin, R. W., & Salmon, B. R. (2000). Procrastination and planning fallacy: An examination of the study habit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5*, 135-150.
- Rabin, L. A., fogel, J., & Nutter-Upham, K. E. (2011). Academic procrastination in college students: The role of self-reported executive function. *Journal of clinical and experimental neuropsychology*, *33*(3), 344-357.
- Russell, J. A. (2003). Core affect and the psychological construc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110*(1), 145.
- Schouwenburg, H. C. (1992). Procrastinators and fear of failure: An exploration of reasons for procrastina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6*, 225-236.
- Schouwenburg, H. C. (1994). *Uitstelgedrag bij studenten* [Academic procrastination].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Groningen, the Netherlands.
- Schouwenburg, H. C. (1995). Academic procrastination: Theoretical notions, measurement, and research. In J. R. Ferrari, J. L. Johnson, & W. G. McCown (Eds.), *Procrastination and task avoidance: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pp. 71-96). New York : Plenum.
- Schouwenburg, H. C., & Lay, C. H. (1995). Trait procrastination and the big-five factors of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 481-490.
- Schouwenburg, H. C., Lay, C. H., Pychyl, T. A., & Ferrari, J. R. (2015).

학업 미루기 행동 상담: 이해와 개입(김동일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4년도에 출판).

- Silver, M., & Sabini, J. (1981). Procrastinating. *Journal of the Theory of Social Behaviour*, 11, 207-221.
- Simons, J., Vansteenkiste, M., & Lens, W. (2004). Placing motivation and future time perspective theory in a temporal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6, 121-139.
- Sinclair, J., et al. (Ed.). (1987). *Collins Cobuild English language dictionary*. London: Collins.
- Solomon, L. J., & Rothblum, E. D. (1984). Academic Procrastination: Frequency and cognitive-behavioral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503-509.
- Steel, P. (2002). *The measurement nature of procrastin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sota, USA.
- Steel, P. (2007). The nature of procrastination: a meta-analytic and theoretical review of quintessential self-regulatory failure. *Psychological bulletin*, 133(1), 65.
- Steel, P. (2010). Arousal, avoidant, and decisional procrastination: do they exis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8, 926-934.
- Turner, J. C., Midgley, C., Meyer, D. K., Gheen, M., Anderman, E. M., Kang, Y., & Patrick, H. (2002). The classroom environment and students' reports of avoidance strategies in mathematics: A multi method stud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4, 88-106.
- Van Eerde, W. (2000). Procrastination: self-regulation in initiating

aversive goal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9, 372-389.

Van Eerde, W. (2003). A meta-analytically derived nomological network  
of procrastin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35,  
1401-1418.

Wolters, C. A. (2003). Understanding procrastination from a  
self-regulated learning perspectiv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 179-197.

Yin, Robert K. (2013). *질적 연구 시작부터 완성까지*(박지연·이숙향·김남  
희 역). 서울: 학지사.



## <부 록>

###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주제 : 고등학생들의 학업미루기 행동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학업미루기 행동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업미루기 행동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면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연구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으로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될 것이며, 글로 옮겨진 면담 내용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의 개인적인 정보는 모두 가명으로 처리할 것이며, 연구 목적 이외에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연구 과정은 연구 윤리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6년 1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교육컨설팅학과 석사과정 김은진

연락처 :

#### □ 연구 참여자 기본정보

이름		성별	
소속(학교)		나이(학년)	
연락처		e-mail	

본인은 위 연구의 참여를 약속합니다.

이름:

서명

## <부록 2> 연구 일지

2017년 1월 2일

첫 공식 인터뷰날!

너무 설레고 신났던 오늘.

질문 내용을 미리 적어서 아이들과의 만남을 준비했다.

아이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

꽃보다 예쁜 아이들이 꽃같이 웃는다.

그냥 별 일이 아니어도 또르르 아이들은 웃었다.

따박따박 또박또박 노랫소리 마냥 예쁘게 말한다.

나는 아이들의 이야기에 덩달아 기쁘고 슬프고 안타까웠다.

꿈을 꾸는 아이들...

함께 꿈을 꾸며 그 꿈을 응원해주고 싶어 안달이 났다. 내가...

빛난다. 예쁜 아이들...

귀하다. 귀해서 불면 꺼질까 싶다.

소중한 아이들.

2017년 1월 9일

준비가 덜 된 채 인터뷰를 했다.

1차 인터뷰 전사도 다 못하고 그냥 아이들을 만났다.

귀한 시간을 나에게 내어주고,

나의 꿈을 묵묵히 응원해주는 것이 온 몸으로 느껴졌는데...

내가 너무 게을러서 자괴감마저 느껴진다.

미안하다... 애들아...

아이들이 말했다.

“오늘 인터뷰는 뭔가 좀 왔다갔다 하면서 대답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은 내가 2차 인터뷰 준비를 열심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인터뷰는 편하고 속 깊은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었지만 아이들을 낮설게 보는 것은 오히려 힘든 것 같다.

미안해. 애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너무 진지하게 인터뷰에 임해주었다.

불 빨간 사춘기처럼 발그스레한 볼로 진지하게 대답해준 강이,

뛰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바다,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돌아가는 상황은 기가 막히게 잘 아는 달이,

이성과 감성을 적절히 가지고 있는 야무진 겨울이....

고맙다. 애들아...

선생님은 알고 있어. 너희들이 나의 꿈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열심히 해서 좋은 글 쓸게.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해서 나갈게.

2017년 1월 11일

오늘은 가을이, 봄이, 여름이를 만났다.

1차 인터뷰를 했던 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보면서 하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나를 짜임새가 있었던 것 같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과 여러 가지로 다른 대답을 해서 정말 의외였고 그래서 더 재밌었다.

봄이는 자기는 미루는 사람이 아니고 미루는 것도 다 계획 하에 미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여학생들은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가 휴대폰, 티비였는데

오늘 만난 여름이와 가을이는 의외로 친구 때문이라고 했고,

여학생과 공통점은 '잠 때문에' 공부가 미뤄진다는 것!

소소하게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어서 걱정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아이들이 시간을 내어서 인터뷰에 응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생각 같아선 더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지만.....^^;;;

아이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나도 내 꿈이 구체적으로 되는 것을 느낀다.

아이들이 스승이다!

2017년 1월 13일

별이를 만났다.

별이는 영리하고 언어의 사용이 고급스럽고 적절했다.

미리 인터뷰 내용을 달라고 한 유일한 학생이기도 했다.^^

생각을 많이 해 와서 그런지 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가 길게 이어졌다.

야무진 아이.

별이와의 인터뷰 포인트는 우리나라의 입시제도 때문에 어찌면 미루는 학생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부분이다.

생각을 깊게 해 볼 가치가 있는 문제인 것 같다.

조금 느리면 어때? 조금 늦으면 어때? 그냥 그 아이의 속도대로 가면 되는 걸...

연구가 진행될수록 나의 편견과 선입견을 되돌아보게 된다.

이 연구를 나는 이미 답을 가지고 시작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 스스로 미루는 행동이 지긋지긋하게 싫었고 고치고 싶었지만 고치기가 무척 힘들었기 때문에 나의 이러한 생각이 이 연구를 하게 이끌었으나 또한 답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지... 연구가 진행되고 아이들과 만날수록 아이들은 그냥 자기 속도로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 또한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어른들이 조금 기다려주면? 제도가 조금 여유로우면? 미루는 것 때문에 죄책감마저 드는 아이들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날이다.

그리고 별이는 고등학생들의 ‘수면 부족’을 호소했지만 고등학생들만 느낄 수 있는 ‘낭만’에 대하여 눈이 반달모양이 되면서 아련한 듯 이야기 했다.

“선생님, 진짜 학교생활이 힘든데 또 진짜 친구들과 추억도 많고 힘들면 강당에서 피아노도 치고... 너무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은 사진을 찍어서 오래 간직해야 하는데...

별이의 고등학교 이야기는 나의 고등학교 시절을 소환했다. 그 때의 나도 예뻐했을까? ㅎㅎㅎ

오늘도 아이들은 예쁘다는 걸 나는 또 느끼고 말았다!